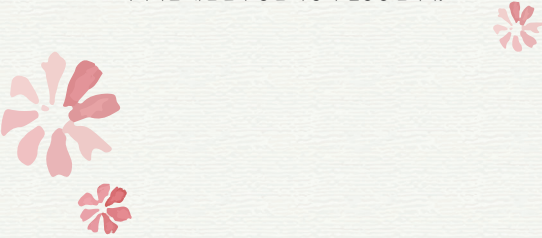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어머니는 대한민국 강한 국방의 일등공신이다.’



가슴의
양식

2018년 가을호 제 143집

국 방 부

글머리

아직도 별은 따갑지만 가을은 분명 가을입니다. 모기의 입이 비뚤어진다는 ‘처서’가 지났으니, 이제 더위의 기세도 곧 수그러질 것입니다.

지난여름은 ‘가혹하다’는 말이 떠오를 만큼 정말 무더웠습니다. 역대 폭염기록이 다 깨졌을 정도입니다. 강원도 홍천의 기온이 40.6도까지 올라 기온 관측 이래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서울도 관측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이렇듯 전국이 통째로 가마솥 같은 더위에 휩싸였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무덥던 곳은 대한민국 곳곳의 ‘병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절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고,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는 곳이 병영이니까요. 그곳에서 국가의 안전을 지키며 더위와 싸워 이긴 장병 여러분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무더위와 관련한 재미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기입니다. 올여름 모기 고생은 여느 해보다 덜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무더우면 사람뿐 아니라 모기도 무기력해져 거의 활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올여름은 일반 가정에서도 모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세상의 이치는 참 오묘합니다. 더위로 고생하면 모기 고생은 덜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더위 때문에 투덜거리면서도 모기 고생을 던 것은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것에는 민감하지만, 자신에게 도움이 된 일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더위를 피할 수 없다면, ‘더위 때문에 못살겠다’는 생각보다 ‘더위 덕에 모기한테 시달릴 걱정은 안 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투덜대며 보내는 시간보다 즐거워하며 보내는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니까요. 누구의 말마따나 ‘매 순간 천당과 지옥을 창조하는 이’는 우리 자신일지 모릅니다. 이왕이면 지옥보다 천당이 좋으니, 매일 마음속으로 천당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마음의 양식> 143집에는 그렇게 마음으로 천당을 짓는 건축법을 소개하는 글들이 빼곡합니다. 바람 맑고 별이 고와 글 읽기 좋은 이 계절에 부디 일독하여 마음창고를 알찬 양식으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2018년 9월

국방부 군종정책과장 육군대령 이정우 목사

차례

병영풍경	어머니의 은혜 제32보병사단 보급수송근무대 이병 여 준	6
이 두 희	하늘에 그린 그림 빨간색의 매력 하늘나라가 있을까? 퇴역식 비상대기 유월이 오면 속도감 주연과 조연 주파수 맞추기 전환점	12 16 22 26 32 38 42 46 50 54
김 영 주	누구나 가슴속에 마이크 한 개 정도는 있다 버스에서 만난 천연기념물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60 64 68



내가 타는 버스에는 '비즈니스석'이 있다	72
죽음의 공포	76
사람 구경	82
부모님 인터뷰	86
담배와 술에 관한 단상	90
버스에 '벨'은 왜 있는 걸까	94
후회막심 나의 군 생활	100

박지영	
'알파고'와 함께 사는 세상	106
어느 '수포자'의 고백	110
'중간콤플렉스' 극복기	114
'주(酒)사'가 쇼핑인 여자	118
우리들만의 시간여행	122
이런 사람 어디 없나요?	126
가짜 기억	130
나 홀로 여행	134
생활밀착형 좌우명	138
역시 아빠보다는 엄마?	142



어머니의 은혜

제32보병사단 보급수송근무대
이병 여 준

안녕하십니까. 저는 32사단 보급수송근무대에서 수집근무병으로 복무 중인 이병 여준입니다. 이제 막 군복무 100일을 향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있었던 인상 깊은 일에 대해 감사함을 전하고자 사연을 쓰게 됐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부터 편지 쓰는 것을 좋아했고, 친구들에게 자주 손편지를 썼습니다. 글쓰기만큼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입대를 하고 훈련소 5주 기간에도 약 100통의 편지를 썼고, 스트레스와 답답함을 그것으로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처음 받는 부모님의 편지를 읽으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고, 정말 모포를 뒤집어쓰고 엄청 울었습니다. 이후 약 10통의 편지를 받았는데,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입대 이후 매일 저에게 편지를 쓰고 계셨습니다. 수료와 면회를 거치며 3개월 동안 편지를 받았는데, 그 안에는 어머니의 간절함·걱정·사랑·애정의 말이 항상 담겨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은 ‘엄마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자리줘서 고마워’였습니다.

저는 이 편지들을 힘을 내야 할 때 읽습니다. 최근 무릎 부상으로 업무제한과 더불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 외에 아파서 서럽고 우울할 때가 생기면 그때마다 어머니의 편지는 위로가 됐고, 제가 이 상황을 이겨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기게 했습니다.

저도 그런 어머니께 주마다 1통 이상 꼭 편지를 쓰는 중이고, 전역 전까지 쓰자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군생활을 하며 얻은 것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은 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았다는 사실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역 이후에도 어머니의 편지는 평생 기억에 남을 거라는 생각과 확신을 합니다. 군대에 있는 아들에게 매일 편지를 써 주시는 어머니,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전국의 많은 국군 용사님들도 부모님께 사소하더라도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 보는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탕과 소금

세상에는

나에게 설탕 같은 말만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소금 같은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주변에는

설탕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소금 같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소금보다는 설탕을 좋아합니다.
설탕의 달달한 맛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음식의 참맛을 내고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설탕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더욱이 설탕은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소금이 없으면 귀한 생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두희 교수

- ♥ 예비역 공군대령/전투조종사
- ♥ 현) 공군나관학교 비행교수
- ♥ 수필가(2012년 푸른솔문학 등단)
- ♥ 저서 <조종사는 가슴의 날개로 난다>
- ♥ 수상 : 보국훈장 삼일장, 흥은문학상






I Love Korea

한국을

사랑합니다

- 하회탈

국보 제121호인 하회탈은 고려 중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주재료로는 오리나무가 많이 쓰였고, 옷칠을 해서 정교한 색을 내고 해학적 조형미가 잘 나타나 미적 가치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일반 평민들 사이에서 성행했으며, 당시의 지배층인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특히 전통 역할극인 별신굿놀이에서 하회탈이 많이 사용됐다.





하늘에 그린 그림

가을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보다. 태풍이 한차례 지나간 뒤 하늘이 파래졌다. 끈적끈적한 습기가 가셔진 공기는 투명하고 상쾌하다. 멀리 있던 덕유산, 속리산, 계룡산, 월악산 산마루가 코앞으로 바짝 다가와 보인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가을은 땅에서보다 더 환하고 아름답다. 봄이 생기로 피어나는 연녹색 아름다움이라면, 가을은 혼돈을 정리하는 투명함과 조금씩 완숙(完熟)으로 변해 가는 황갈색 아름다움이다. 푸른 하늘은 그 아름다움의 바탕이자 여백이다.

가을이 오면 누구나 바빠진다. 진짜 바빠서 바쁜 게 아니라 조

바심으로 인해 마음이 먼저 바빠진다. 전투조종사도 역시 바쁘다. 낫은 날이 드물어서 쉴 틈이 없기도 하지만 각종 훈련과 행사가 줄을 잇는다. 덩달아 활발해지는 북한공군 활동은 비상대기실의 조종사들을 긴장시키곤 한다. 자신과 부대의 전투기량을 겨루는 보라매공중사격대회가 열리는 시기도 가을이다. 그래서 가을은 ‘천고마비(天高馬肥)의 계절’이 아니라 ‘천고조피(天高操疲: 하늘이 높아져서 조종사는 피곤하다)의 계절’이라는 농담도 있다. 어찌 보면 가을은 조종사에게 절정의 시즌인 셈이다.

가을이 오면 공군에어쇼 팀 ‘블랙이글’의 하늘 그림은 더욱 선명하고 힘차게 그려진다. 질푸른 하늘에 파스텔 톤의 연막으로 꿈과 낭만, 그리고 국가와 국민들을 향한 강한 의지를 그려낸다. 1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는 순간예술이지만, 그림들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뚜렷하게 투영된다. 특히 여덟 대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그려내는 웅장함과 박진감은 어린이와 청소년들로 하여금 푸른 꿈을 꾸게 한다.

나 같은 조종사가 그들의 힘찬 움직임을 보며 느끼는 감회는 또 다른 면이 있다. 몸무게의 5~6배를 넘나드는 격렬한 신체적

하중(G)을 견디면서도 3m 안팎의 비행기간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내쉬는 거친 숨소리가 들린다. 사람들에게겐 소음에 지나지 않았지만 하늘로 치솟으며 남기는 요란한 폭음소리는 온몸을 전율케 하는 떨림으로 전해 온다. 그 순간 내가 조종사라는 사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4년 전이었던가. 블랙이글 팀이 영국에서 열리는 국제 에어쇼에 참가했다. 많은 외국의 군 지휘관들과 함께 블랙이글 에어쇼를 참관한 한국 공군참모총장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저 눈시울을 붉힌 정도가 아니라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감격의 눈물을 줄줄 흘렸다. 모든 기동이 끝나고 무사히 착륙한 블랙이글 조종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직접 찾아간 항공주기장에서였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강국 에어쇼 팀들을 누르고, 당당히 세계 최고의 팀으로 우뚝 선 모습에 솟아오르는 짙한 감정을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다. 우리 손으로 만든 제트기로 영국의 하늘에 커다란 태극무늬를 그려낸 자랑스러운 부하조종사들이었다. 그들 앞에서 공군의 수장(首長)이라는 근엄한 모습은 허물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목이 메어 겨

우 이어간 몇 마디 격려의 말은 지금까지의 그 어떠한 칭찬보다
진하고도 뜨거웠다.

애국심은 단순한 교육이나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다. 사나이의 뜨거운 눈물도 쉽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라를 위해 무언가 해냈다는 뿌듯함과 지휘관의 진심
이 눈물로 승화돼 전해질 때, 모두가 하나 되는 감동이 온다. 그
때 애국심은 자연스럽게 사나이 가슴에 아로새겨지는 것이다.

수년 전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최전방을 지키는 많은 병사들이 전역을 연기하고 동료들과 생사
를 같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일부 못된 군인들로 인해 군 전
체가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아직도 일선부대에는 애국심과 군인
정신이 살아 있다.

군대에 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 아이러니한 비밀을 잘 모른다.
무엇이 군인을 군인답게 만드는지, 어떻게 가슴 뜨거운 사나이
가 돼 가는지, 왜 남자 세 명이 모이면 군대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지를...



빨간색의 매력

빨간색이 이념의 그늘에서 벗어나 금기(禁忌)의 벽을 허물어 뜨리게 된 계기는 2002년 월드컵대회일 것이다. 빨간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아침부터 전철역과 거리를 가득 메웠을 때, 이념에 짓눌려 온 빨간색이 반란을 일으킨 듯했다. 불그스레한 저녁노을 그림만 그려도 사상에 대해 의심을 받던 시대를 넘어서 빨간 옷이 나라사랑과 축구사랑을 대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빨간색은 '우리는 하나'라는 동류의식을 갖게 하고 스스로 뭉치게 하는 힘을 보여 주었다.

스페인의 투우사들은 '카포테'라는 빨간 천을 흔들며 성난 소

를 유인한다. 이때 빨간색을 보고 흥분하는 것은 소가 아니라 관중들이다. 어차피 소는 색맹이므로 파란색인지 붉은색인지 모르고 투우사가 천을 흔들면서 약을 올리니까 달려들 뿐이다. 그러나 관중들은 소가 흘리는 붉은 피와 투우사가 흔드는 빨간 천에 흥분이 고조되고, 마침내 소가 쓰러지면 미묘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다. 빨간색은 사람을 열광하게 하고 또한 가슴속 응어리를 쏟아내게 하는 마력이 있다.

조종사의 상징인 빨간마후라(빨간머플러가 표준어이지만 역사성을 고려하여 국립국어원에서 표준어로 인정함)는 조종사의 ‘멋’을 상징하고 있다. 그 멋은 단순히 빨간색이 지닌 마력의 작용 때문만은 아니다. 파스한 인간미와 사랑에 의해 그것이 탄생됐고 수많은 조종사들의 정열과 희생이 울울이 배어 있어서 그렇다. 1964년 개봉된 영화 <빨간마후라>를 본 사람은 지금도 피처럼 붉은 그 매력을 잊지 못한다.

빨간마후라는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대비되는 이념의 극한적 대립상황에서 태어났다. 6·25전쟁이 한창이던 때의 겨울, 매일 같이 적진으로 출격하던 조종사가 잠깐의 시간을 틈타 같은 부대

지휘관이었던 친형의 집에 들렀다. 웬지 추위 보이는 시동생에게 형수님은 치마저고리를 만들려던 붉은 천으로 머플러를 만들어 주었다. 그것이 조종사의 투지와 열정, 우국충정을 상징하는 빨간마후라의 시초다. 그때 형수님은 왜 빨간색 천을 사용하게 됐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당시의 정황을 미루어 짐작해 보면 형수님의 따뜻한 감성이 느껴진다. 전쟁 중이라 집에 남아 있는 옷감이 그것밖에 없어서일 수도 있겠지만, 금기시되고 있는 빨간 천을 군인인 시동생에게 선뜻 내어 주었다.

빨간색은 따뜻한 느낌의 색이다. 거기에다 믿음직하고 늠름한 시동생에게 정열을 상징하는 빨간색이 적격이라는 감성은 ‘금기의 색’이란 굴레를 훌쩍 뛰어넘었다.

형수님이 만들어 주신 빨간마후라를 매고 부대로 돌아온 그 조종사는 곧바로 전설이 됐다. 우중충한 국방색 조종복에 빨간마후라는 장미꽃을 단 것처럼 멋진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고공에서의 살을 에는 추위를 견디기 위해 목도리만큼 간단하고 효과적인 옷이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문제는 빨간색이었다. 그러나 당

시 지휘관이었던 형은 사재를 털어 빨간 인조건을 구하고, 큼직하게 잘라 출격하는 모든 조종사의 목에 두툼하게 감아 주었다. 그것은 군인의 복장규정을 임의적으로 바꾸는 쉽지 않은 결단력이었다. 만약 적진에서 전투 중 불가피하게 낙하산으로 비상탈출을 했을 경우, 빨간마후라를 신호기(信號旗)로 흔들거나 땅에다 표시를 해서 동료조종사에게 생존을 알려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즉 빨간마후라는 출격하는 조종사에게 세상 어느 곳이라도 살아만 있으면 언제든지 구하러 가겠다는 지휘관의 약속이었던 것이다.

나이가 들면서 빨간색이 더 좋아졌다. 위험지대를 경험해 보고 싶은 치기(稚氣)라기보다 젊음의 색이기 때문일 게다. 편하게 입을 수 있는 티셔츠나 등산복도 빨간색이 많고 넥타이도 빨간 계통의 색을 땀 때가 많아졌다. 심지어 빨간 옷을 입은 아내가 더 예쁘게 보이기도 한다. 평범하고 두루뭉술한 중년의 색깔에 묻히고 싶지 않아서일까, 빨간마후라와 함께한 내 청춘에 대한 애착일까. 어쨌든 빨간색이 이념적 편협함과 화려함에서 오는 거부감을 떨쳐내고 우리 생활에 친근한 느낌으로 다가와 주어서

고맙다. 빨간색이 본래의 기능과 감성을 회복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건강해졌다는 실증이기도 하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빨간 티셔츠를 입고 한마음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빨간마후라는 우리 조종사들에게 멋과 애국심의 상징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체력이 성공의 열쇠다

성공하려면

자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이미지 관리, 사람 관리는 물론이고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체력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건강해야 성공도 이룰 수 있는 법이니까요.

몸이 쇠약해지면 세상만사가 귀찮고

자꾸 비관적인 생각만 들게 마련입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몸이 허약한 사람들입니다.

체력이 강한 사람은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납니다.

강인한 체력은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하늘나라가 있을까?

얼마 전 친구의 부음을 받았다. 소천했다. 갑자기 날아든 소식이라 당황스러웠지만 부음을 받아 하늘나라로 갔다는 그 말이 잔잔한 파문으로 가슴에 와 닿았다. ‘소천(召天)’이란 말은 특정 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말이지만 평소 착하게 살아온 그 친구에게 꼭 어울리는 말이었다.

죽음 이후 사람의 영혼이 도달하게 되는 곳을 ‘하늘나라’라고 인식하는 것은 동서양의 구분이 없는 것 같다. 미 공군에서 순직 조종사를 위한 추념비행 장면을 본 적이 있다. 장례식 마지막 순서로 절친하던 동료조종사가 비행기를 몰고 하늘 높이 솟구쳐 올

라갔다. 마치 순직조종사의 영혼이 비행기를 따라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 같은 장엄한 모습이었다. 사람들은 그가 이승에서의 미련을 내려놓고 영예롭게 하늘나라로 갔으리라 상상하며 슬픔을 위로하는 것 같았다.

나도 언젠가 비행기를 몰고 하늘나라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다. 그곳이 꼭 하늘나라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 하늘나라가 있다면 바로 그러한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은 어두컴컴한 구름이 낮게 드리워지고 빗방울마저 간간이 떨어지는 곳은 날씨였다. 전방지역 초계비행 임무로 동료조종사와 함께 기지를 이륙하였는데 곧바로 구름에 진입했다. 한참동안 캄캄한 구름 속을 비행하다가 약 3만 피트(10km)의 고도에 이르자 주변이 환하게 밝아지더니 앞이 뽕 뚫렸다. 엉겁결에 들어서게 된 그곳은 하얀 구름이 솜이불처럼 깔려 있는 대평원이었다. 눈과 얼굴을 감싸는 선바이저 없이는 똑바로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강한 햇빛과 새하얀 구름만이 태고의 고요함을 간직한 채 펼쳐져 있는 별천지! 그곳은 천상(天上)의 세계였다. 조종간을 잡고 있는 나의 오감과 의식은 꿈속처럼 아득해졌다.

“아니! 저건 또 무엇일까?”

아래를 내려다보니 구름 위에 작고 동그란 무지개가 떠 있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지개 가운데에 내가 탄 비행기의 그림자가 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다른 내가 구름 위를 달리고 있었다. 마치 나와 분리된 영혼이 아름다운 원형 무지개에 둘러싸여 어디론가 날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깨어 있다는 현실감은 더욱 멀어졌다. 주변 어딘가에 옥황상제가 살고 있는 궁전이 보일 것 같은 환상이 떠오르기도 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편대비행 중이던 동료비행기를 발견하면서 현재 의식으로 되돌아왔다.

사실 과학적 시각으로 보면 하늘나라란 없다. 내가 보았던 하얀 대평원은 그저 구름 위의 한 장면이고, 동그란 무지개와 그 속의 그림자도 ‘브로켄 현상’이라는 자연현상이었을 뿐이다. 자연의 법칙엔 예누리가 없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 조건만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자연현상은 제대로 알고 보면 신기할 것도 없고 크게 아름다울 수도 없을 것 같다.

첨단과학의 총아인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간 사람들이

무심결에 내뱉는 말은 “오, 신이여!”라는 감탄사란다. 푸른빛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지구의 모습은 도저히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났다고 볼 수 없기에 외치게 되는 말이란다. 우리는 하늘을 보며 한없이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막상 하늘에 닿고 보니 사람들이 복닥거리며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더 아름다웠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어쩌면 하늘나라는 문학이나 예술적 상상이 만들어 낸 산물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간절하게 하늘나라의 존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래서 허구인 줄 알지만 굳게 믿는다. 내가 본 그곳처럼 하늘의 어딘가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져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곳엔 먼저 가신 부모님들이 정답게 살고 계시고, 정이 많았던 내 친구가 서둘러 간 곳이기도 하다. 나도 착하게 살다보면 그곳에 가게 될 것이란 꿈을 꾀다. 그곳이 있기에 하루하루의 고달픈 삶도 견디어 낼 수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어쨌든 하늘나라는 있다. 단지 나는 아름다운 하늘나라의 귀퉁이 일부분만 보았을 뿐이다.



퇴역식

화창한 봄날에 주어진 임무를 모두 마치고 역사 속으로 물러가는 퇴역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그동안 수많은 조종사를 훈련시켰던 비행기였다.

T-103이라 불리는 이 훈련기는 새로이 임무를 담당하게 될 후속 비행기와 편대비행으로 평소에 누비던 하늘을 한 바퀴 돌고 착륙했다. 마지막 발자취를 뚜렷하게 남긴다는 의미였을까? 착륙 전 붉은 연막을 하늘에 길게 뿌리며 활주로를 향해 들어왔다.

행사장에 모인 조종사들과 정비사, 비행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큰 박수로 그동안의 노고를 위로했다. 그리고 비행기의

심장인 엔진 앞에 커다란 화환을 걸어주고 삼페인을 터뜨려 뿌려 주며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었다. 주인공은 그동안 수 천 명의 학생조종사를 훈련시켰고 총 6만여 비행시간을 남겼다.

공군 조종사라면 누구나 주인공에게 아련하면서도 특별한 감회를 가지고 있다. 꿈에 그리던 조종사의 길에서 맨 처음 만났던 비행기. 그 첫사랑 같은 인연이 자신만의 애뜻한 색깔로 기억돼 있다.

사실 조종사가 되기 위한 첫 날갯짓은 고행의 길이다. 이제 막 고삐를 맨 망아지처럼 제멋대로 날뛰는 비행기를 안전하게 길들이는 일은 술한 번민과 자책을 동반한다. 첫사랑을 통해 사람들이 삶과 사랑의 실체를 알아가듯 조종사들은 그 과정을 통해 비행의 난해함을 맛보게 된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어야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된다.

공군의 역사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옛 선배조종사들로부터 지금까지 조종사들은 비행기를 단순한 기계로 여기지 않는다. 사람과 교감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비행기와 조종사는 한 몸'이라는 '기인동체(機人同體)' 정신은 서로

에 대한 신뢰감을 상징한다. 그 정신을 통해 비행 중 생기는 사소한 이상이라도 내 몸 어딘가가 아픈 것처럼 미세한 떨림으로 알려줄 것이라 믿는다.

4000여 시간을 비행하면서 실제 그러한 경험을 몇 차례 경험했다. 언젠가 엔진에 약간의 진동이 느껴져 재빨리 귀환했는데 엔진 속을 들여다본 정비사의 말로는 정말 아슬아슬했단다. 조금만 발견이 늦었어도 무사히 귀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비행기에 애착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정비사도 마찬가지다. 잘 정비해 비행을 내 보냈는데 귀환하지 못하고 추락하는 사고가 나면 정비사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것처럼 슬픔에 빠진다. 2005년 내가 근무하던 비행단에서 추락사고가 났을 때, 담당정비사는 며칠 동안 출근을 하지 못했다. 그 비행기가 서 있던 격납고를 바라보기도 힘들었단다. 그만큼 정이 들었다는 말이다. 그래서 비행기의 퇴임식은 친한 친구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것처럼 서운하고 허전하다.

이제 할 일을 다 마쳤으니 오늘의 주인공도 자연으로 돌아가

게 될 것이다. 사람의 일생과 비슷하다. 항공박물관에 가면 옛날에 내가 조종해 날아다니던 여러 비행기들을 볼 수 있다. 그들은 비록 더 이상 날지 못하지만 버려졌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 할 일을 마치고 쉬고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에게 역사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임무를 띠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마 오늘의 주인공도 일부 몇 대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만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생각은 예로부터 내려온 삶의 지혜였다. 우리의 조상들은 큰 바위나 나무, 심지어 공동우물이나 집 안의 화장실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었다. 현대의 과학적 시각으로 보면 미신에 지나지 않겠지만 말이다.

행사가 끝날 때쯤 기념사를 하게 된 전대장은 “동생이 태어나면 엄마의 따뜻한 젖가슴은 자연스레 동생에게 넘겨지듯이 새로운 비행기에게 사랑을 넘겨 주자”고 당부했다.

새 엔진에 갈끔해진 조종석, 더 좋은 성능을 가진 비행기이지만 딱딱한 새 신발을 처음 신었을 때처럼 아직은 푸근하지 않고 어색하다. 내가 비행기에 길들여지는 것인지, 비행기가 나

에게 길들여지는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지만 차차 익숙해지면서 정이 들어 갈 것이다.

비록 인간이 만든 기계에 지나지 않지만 생사고락을 함께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비행기에 대한 조종사들의 정에는 남모르는 애뜻함이 담겨 있다.

미련을 갖지 마라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었던 게 있을까요?

당신의 돈과 당신의 집도 남의 것이었고

심지어 당신의 목숨까지도 신이 주신 겁니다.

당신 것이 아니었던 만큼

그것이 당신 곁을 떠난다고

너무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것이 당신에게 왔듯이

당신의 것이 남에게 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언제나 큰마음을 가지고

당신 곁을 떠나려 하는 것을 놓아 주세요.

그릇도 비워야 새것을 담을 수 있으며

미련을 버릴 줄 알아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비상대기

“따르릉.”

순간적으로 시선이 주위의 벽을 황급히 더듬는다. ‘SCRAM-BLE(비상출동)’이란 빨간 표지등이 눈에 띄지 않는다.

“아차, 조금 전 아파트 화재경보기 점점이 있을 것이란 안내 방송이 있었지, 휴~!”

깜짝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다. 벨소리만 들리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나의 신경조직은 일선비행단을 떠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아직도 비상대기 중이다.

전투기의 비상출동은 귀가 멍할 정도의 요란한 벨소리로 긴

박함을 알린다. 그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조종사와 정비사는 전속력으로 항공기를 향해 뛰든다. 진행 중이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멈춰지고 오직 반복적으로 훈련된 절차에 따라 움직여진다.

F-5전투기에 오르는 사다리에는 왼발부터 올려놓아야 조종석으로 내딛는 발이 오른발이 된다. 좌석에 앉으면서 곧바로 오른쪽 낙하산 팔걸이에 어깨를 걸 수 있다. 그 다음 왼쪽 팔걸이에 손을 집어넣으면서 배터리 스위치를 올린 후 왼쪽 엔진 시동버튼을 누른다. 시선은 엔진계기가 정상적인 운전 상태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손은 재빨리 좌석벨트를 조여 매고, 낙하산 가슴 고리를 채운다. 이어서 오른쪽 엔진 시동을 걸고 앞으로 튀어나가며 관제탑의 이륙허가를 요청한다. 주요 항전 장비들은 시동이 걸리면 자동적으로 작동하도록 사전에 세팅돼 있다.

곧 두 대의 항공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이륙한다. 3분이 채 걸리지 않은 시간이다. 침투해 오는 적기가 초당 300미터 이상의 속도로 날아오고 있다고 생각하면 일분일초가 다급하다. 조금이라도 빨리 날아가야 영토의 경계선인 북방한계선(NLL) 상

공에 먼저 도달하고, 전투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다. 비상출동은 공중전투의 시작인 것이다.

조종사에게 있어서 비상대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신성한 임무다. 존재의 이유가 비상대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것은 비단 조종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듯하다. 모든 군인의 본분은 결국 '비상대기'이다. 국가적 위기가 닥쳤을 때에 대비해 항상 준비된 상태여야 하는 것이 군인의 숙명이다. 개인별 직책이나 임무에 따라서 출동에 허용되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중에서도 불철주야를 가리지 않는 전투기의 비상대기는 가장 긴박한, 시위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의 모습이고, 화살의 자세다. 되돌아보니 비상대기실에서의 수많은 시간을 통해 내가 군인임을 자각할 수 있었고, 내 삶을 소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듯싶다.

전투기는 공중전투초계(Combat Air Patrol)란 임무로 '공중 비상대기'를 할 때가 많다. 비상대기실에서 임무지역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 아예 북방경계선 부근에 체공하는 것

이다. 순찰비행이므로 위협이 될 만큼 가까운 거리에 적기가 다가오지 않으면 연료소모가 적은 순항속도로 유유히 비행한다. 나는 그러한 비행을 좋아했다.

길어야 1시간을 조금 넘는 시간이지만 전장(戰場)에서의 평화로움을 맛볼 수 있었다. 날씨가 좋은 날이면 북쪽 멀리까지 내려다보였다. 한없이 평화롭게 보이는 그곳이 금단(禁斷)의 땅이요, 그곳 어딘가에 나를 겨냥한 미사일이 준비돼 있다는 사실이 영 믿어지지 않았다. 땅 위에서 고물고물 살아가고 있을 사람들을 상상하면 내가 마치 특별한 능력이라도 가진 것처럼 우쭐해지기도 했다.

9년 전, 전역을 하던 날은 전투조종사로서의 비상대기 소명을 마치는 날이었다. 임무를 다했다는 시원함보다 나의 역할이 줄어들다는 서운함이 앞섰다.

하지만 나의 신경조직은 아직도 요란한 벨소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끔은 각종 장비와 권총을 차고 비상대기를 하는 나의 모습을 꿈속에서 발견할 때가 있다. 지나간 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역시 '비상대기'라는 네 글자로 귀결될 것

이다.

비록 그것으로 인해 수많은 심신의 제약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고, 세속의 즐거움을 포기해야 할 때가 많았지만 그것을 통해 내 삶의 가치를 얻었다. 그래서 나는 꿈에서라도 아직 비상 대기를 서고 있나 보다.

실천에 앞서서는 지혜는 없다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거나
뒤에 물러앉아 때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나가 무슨 일이든 만들어 갑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기회를 잡기 위해
철저한 준비를 해둡니다.
그중에는 실패도 포함됩니다.
실패하지 않고 단번에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30년 후
당신은 자신이 저지른 일을 후회하기보다
당신이 포기한 일로 더 후회할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뭔가를 해야 합니다.
항구를 떠나지 않는 배는 절대 목적지에 갈 수 없습니다.



유월이 오면

짧은 오월이 지나가고 벌써 유월이다. 상큼했던 공기가 후텁지근하게 바뀌고 한껏 뜨거워진 햇볕과 붉게 핀 장미가 여름의 시작을 알린다. 유월에 들어서면 계절의 변화보다 맵싸한 전쟁의 잔상이 먼저 떠오르는 것은 내가 평생 군인이었기 때문일까? 전쟁을 직접 겪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이지만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들었던 남북대치의 상흔들이 유월이 오면 기억의 저편에서 되살아난다. 영화 <국제시장>에서의 주인공 세대는 아닐지라도 뜨거웠던 그날의 아픔이 나의 핏속에도 흐르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어렸을 적 같은 동네에 살던 친척 형이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통지서를 받던 날도 어느 해 유월이었다. 그날은 온 동네가 들판에서 태우던 보리티끌의 자욱한 연기에 휩싸여 초저녁부터 등불을 켜야 했다. 그 매캐한 연기가 마치 전장에서 포연(砲煙)처럼, 묘비 앞의 향연(香煙)처럼 해마다 이맘때쯤 코끝에 아른다. 그래서 유월이 오면 국립현충원을 찾게 된다. 그곳엔 내 삶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많은 선후배 조종사들과 동기생들이 잠들어 있다.

사관생도 2학년 때의 유월. 현충일을 맞이하여 몇몇 동기생들과 동작동 국립현충원에 갔을 때였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묘역에서 절규하는 소복차림의 중년여인을 만났다. 몇 주 전 불의의 비행사고로 순직해 묘지석이 돼 버린 아들을 쓰다듬으며 울고 있는 어머니였다. 그 순직조종사는 생전의 모습이 생생한 선배님이었고, 이제 막 임관한 '소위'였다. 어머니는 생도제복을 입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한없이 슬픈 눈물을 흘리셨다. 그 날 비로소 내가 군인의 길을 걷고 있음을 실감했다. 빗속에서 절규하고 있는 그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왔다. 그날 밤 책상 앞에 앉아 군인의 길에 대해, 그리고 죽음에 대해 긴 일기를 남겼다.

8년 전 대대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비행사고로 순직한 고(故) 오충현 대령도 같은 마음이었나 보다. 역시 비행사고로 순직한 동기생의 장례식장을 다녀온 뒤 10년 후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듯 일기를 썼다.

내가 죽으면 가족은 내 죽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답답하고 절제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장례는 부대장(部隊葬)으로 치르되 요구사항과 절차는 간소하게 했으면 한다. (...) 조국이 부대장을 치러 주는 것은 조종사인 나를 조국의 아들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족의 슬픔만 생각하지 말고나 때문에 조국의 재산이 낭비되고 공군의 사기가 실추됐음을 사과해야 한다. 군인은 오로지 '충성'만을 생각해야 한다. 비록 세상이 변하고 타락한다 해도 군인은 조국을 위해 언제 어디서든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전투 조종사의 운명이다.

우리는 동고동락하던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

본래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되나 보다. 전장에서 실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의하면, 처음엔 총알이 날아올까 두려워 벌벌 떨다가도 옆에 있던 전우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것을 보는 순간,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돌진하게 된다고 한다. 군인을 군인답게 만드는 것은 다름 아닌 동료의 죽음이란다.

날개를 나란히 하고 하늘을 날았던 동료조종사의 묘비 앞에서면 현재의 내 모습을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게 된다. 오늘 그들의 묘비 앞에 내가 서 있지만 어찌면 그 묘비의 주인이 '나'일 수도 있었음을 다시금 상기하게 된다. 그리고 보면 지금까지의 내 삶 속에는 먼저 간 동료들이 이어가지 못한 삶의 조각들이 포함돼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들의 죽음을 통해 얻게 되는 비행 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살아 있음에 대한 자각이 내 심장을 더 열심히 뛰게 한 것이 아닐까.

모운숙 시인은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라는 제목의 긴 시를 남겼다. 국립현충원에 가면 나라를 지키다 먼저 가신 호국영령들이 살아남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다.



속도감

사계절 중 봄의 속도가 가장 빠른 것 같다. 엇그제 봄꽃을 보며 기뻐했는데 벌써 여름이다. 공중에서 내려다보는 산과 들의 정경이 짙은 청록색으로 변하나 싶더니 좁은 조종석에는 벌써 후텁지근한 땀 냄새가 느껴진다. 빠른 것은 비행기라고 하지만 계절의 속도를 어찌 따를 수 있을까.

어릴 적엔 무엇이든 빠른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 달리기에서 1등을 한번 해 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쏟곤 했다. 빨리 자라서 남들보다 먼저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조종사가 되고 싶었던 것도 비행기의 빠른 속도에 매

혹된 때문인지 모른다.

속도에 관한 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민은 없을 것 같다. ‘빨리빨리’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배어 있다. 무엇이든 느린 꼴은 속 터져서 못 참는다. 왜 빨라야 하는지, 빠르면 어떤 점이 좋은지 따져보지도 않는다. 유행이란 것도 너무 빨라서 일반 대중들은 늘 숨이 가쁠 정도로 쫓아가고 있다.

어느 경제학자 말로는 우리나라가 전쟁 이후 빛나는 경제성장을 이룩한 배경에는 속도에 대한 집착이 큰 역할을 했단다. 우리의 재빠른 속성을 늦추면 경제성장도 덩달아 느려질 것이란 예측도 내놓았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다만 성급함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그러한 변명으로 합리화하기엔 어딘지 모르게 균색한 면이 있다.

함께 차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다.

“음속보다 빠른 전투기를 몰고 다니던 사람이 이렇게 천천히 운전하면 답답하지 않나?”

한참 동안 고속도로를 달리다 국도로 나오게 되면 갑자기 60킬로미터의 속도가 굼벵이처럼 느리게 느껴지는 것과 같지 않나

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내가 느끼는 실제의 속도 감은 시간당 100킬로미터의 차를 운전할 때가 700킬로미터의 비행기를 조종할 때보다 더 빠르다. 이러한 현상은 속도가 본질적으로 '상대성'으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이다. 속도는 주변에 비교가 될 만큼 느리거나 고정된 참조물이 있어야 느낄 수 있다. 높이 날아다니는 비행기의 실제 속도는 자동차보다 훨씬 빠르지만 비교가 되는 산과 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빠른 속도감을 못 느끼는 말이다.

시간의 빠르기도 마찬가지다. 어린 아이의 하루와 노인의 하루 길이가 완전하게 다른 것은 주위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생긴다. 남은 시간이 짧은 노인에게 계절의 변화는 두려울 만큼 빠르다. 사계절의 변화가 거의 없는 아프리카 오지의 부족들은 자신의 나이를 잘 모른다고 한다. 새파랗게 젊은 여인이 200세라고 말해 여행객들을 깜짝 놀라게 했단다.

무리지어 살아가는 초식동물들에게 '속도'는 곧 생명이다. 달리는 속도가 떨어지면 주위에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맹수들에게 언제 잡혀 먹힐지 모른다. 한가롭게 풀을 뜯다가도 한 마리가

뛰기 시작하면 선두를 따라서 무작정 달리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희생양은 쉽게 드러난다. 배고픈 맹수들이 노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하루하루 삶의 리듬을 늦추지 못하는 이유도 처지면 곧 도태될 것이란 속도에 대한 집착 때문이다. 나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초식동물의 '무작정 달리기'처럼 주변의 흐름에 따라 허둥지둥 달리고 있는 게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다가오는 시간에 쫓기지 않기 위해서는 '나'를 찾는 것이 급선무다.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찾아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뒤늦게 글쓰기를 배우기로 했다.

언제나 위기는 나 자신이다.

- 셰익스피어 -



주연(主演)과 조연(助演)

요즘 한국영화가 더 재미있다. 쉽게 따라잡기 어려운 미래의 이야기나 무지막지한 로봇형 인간들의 파괴력보다는 인간미 넘치는 우리 영화에 더 끌린다. 특히 어수룩하면서도 유머가 있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우직한 '배우 황정민'의 캐릭터가 참 좋다. 그의 영화엔 보통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따뜻함과 반전의 통쾌함이 있다. 나이 탓인가? 영화를 보면서 황정민 뒤에서 움직이는 조연들의 연기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알미운 악당이지만 주연 못지않게 열연하는 조연들의 연기력에도 감동할 수 있고 박수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영화의 줄거리는 대부분 주연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주연을 통해 스토리를 풀어간다. 극장을 나서면서 내가 마치 주인공이 된 듯 우쭐하게 되는 것도 주연의 강한 이미지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연은 배경인 조연이 있어서 돋보이고, 조연들의 소소한 이야기들로 인해 영화의 깊은 맛과 짝 찬 느낌을 주게 되는 것이다.

비행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면 사람들의 시선은 비행기와 조종사에게 집중된다. 한 번의 비행을 위해 수많은 조연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잘 들어 오지는 않는 법이다.

항공기 정비사들은 아무리 이른 아침의 비행이라도 1시간 전까지 비행준비를 마쳐야 한다. 시운전을 해서 엔진과 항공기 기체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연료차가 와서 기름을 가득 채우고 무장사들은 필요한 미사일이나 총·포탄을 장착한다. 기상장교는 현재의 기상과 앞으로의 예보를 시간단위로 분석해 알려준다. 항공기가 움직이는 순간부터 관제사들은 정확한 길을 가는지, 다른 항공기와 충돌하지 않는지 확인해 안전하게 유도

한다. 그 외에도 활주로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항공기를 중심으로 마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빈틈없는 조연들의 역할이 있어서 안전하고 성공적인 비행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보면 주연이나 조연이나 제각기 맡은 역할의 중요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스포츠인 야구에서 투수와 야수의 관계처럼 주연은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스토리 전개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을 뿐이다. 또한 성공적인 영화 한 편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주연과 조연, 그들을 둘러싼 스태프들 사이에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책임과 신뢰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조직에서의 책임과 신뢰는 상호보완적이 아니라 인과(因果)의 관계다.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 신뢰가 쌓이고, 신뢰가 있으면 책임을 따져야 할 이유가 없어진다.

몇 년 전 정비사의 실수로 인해 항공기가 추락했다. 사고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실수는 아주 사소한 것이었다. 하지만 작은 실수가 치명적 사고로 이어지는 과정엔 적어도 세 번 이상의 확인과 점검과정이 있었지만 교묘하게도 그 과정을 여과 없이 통

과해 버렸다. 조사결과는 커다란 여파를 예고하고 있었다. 바로 책임문제였다. 처음 실수한 실무정비사로부터 감독관, 심지어 항공기를 설계하고 생산한 분야까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자칫 체제 전체가 불신감에 휩싸일 위기에 처했다.

결국 2차적 책임이 있던 정비감독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로 이어졌다. 그의 죽음으로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그가 목숨까지 버려 가면서 깊어지려 한 것은 정비실수에 대한 책임이 아니었을 것이다. 사실 그건 억울한 일이다. 그가 진정으로 두려워한 것은 조종사와 정비사 간의 두터운 신뢰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었을까.

영화 <설국열차>의 봉준호 감독은 배우들을 대하는 남다른 시선과 조련법이 있다고 한다. 그는 배우들에게 계약에 의한 각자 역할과 책임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조연이라 할지라도 관객에게 자신의 작품세계를 전달하는 진정한 주연처럼 대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와 인연을 맺은 배우와 스태프는 곧바로 '봉준호 사단'이 된다고 한다.



주파수 맞추기

전투기입문과정(CRT) 학생조종사 시절의 이야기다.

공중사격임무로 1·2번기가 먼저 편대이륙을 했다. 이륙 중 2번기 학생조종사가 1번기 교관조종사의 수신호(手信號)를 놓쳐 뒤로 처지면서 단기(單機) 이륙이 돼 버렸다. 화가 난 1번기 교관은 곧바로 통신기 주파수 변경을 지시했다. 비행 전 브리핑을 할 때부터 비행준비가 덜 됐다고 뿔이 나 있던 교관은 임무주파수로 넘어가자마자 2번기 학생조종사에게 기총을 쏘듯 질책을 쏟아부었다.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놓고 왔느냐?’라는 내용으로, 짜증 섞인 질책은 한참 동안 계속됐다. 4번기였던

나도 바짝 긴장이 될 정도였다. 비행이 끝난 뒤 디브리핑(비행 후 강평) 시간의 모습이 벌써 훤히 그려졌다. 화난 교관의 꾸중은 “알아들었어?”로 겨우 마무리되는 듯했다. 그 순간 2번기의 응답은 썰렁한 상황을 단번에 정리해 주었다.

“Roger!(알겠습니다)”가 아닌 “Say Again!(다시 말씀해 주십시오)”였다.

2번기는 이륙 당시 당황한 나머지 통신주파수를 미처 따라오지 못했던 것이었다. 교관의 꾸중이 끝날 때쯤에야 주파수 변경이 안 됐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황급하게 주파수를 맞추고 보니 교관의 마지막 말인 ‘알아들었어?’만 간신히 들을 수가 있었다. 화가 나서 한참동안 질책을 퍼부었는데 처음부터 다시 말해 달라고 했으니 교관의 말문은 막힐 수밖에 없었다. 잠시 틈을 들인 후 교관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낮은 톤으로 되돌아갔다.

소통의 첫 단계는 주파수 맞추기다. 모든 무전기가 그렇듯 비행기의 무선통신기도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중요한 정보나 급한 메시지도 전달할 수 없다. 일상의 대화에서도 서

로의 주파수가 맞았는지 확인하는 일이 먼저다. 마주보며 말은 주고받지만 머릿속에서 판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좋아하는 말만 듣게 된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는 심리적 거리감을 더 멀어지게 만들 뿐이다. 가정에서 아이들과의 대화를 할 때도 그렇다. 세대차이 때문이라고 하지만 가족이란 의미가 무색해질 때가 있다. 특히 사춘기의 아이들, 그들의 주파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정말 맞추기 어렵다고들 한다.

한때 유행하던 유머 중에 '사오정 시리즈'가 있었다. '사오정'은 주파수를 못 맞추는 대표적 캐릭터랄까.

수업시간에 사오정이 손을 들더니 말했다.

“선생님, 칠판 글씨가 안 보이는데요?”

선생님이 물었다.

“이게 안 보여? 너 눈이 몇이냐?”

사오정의 답.

“제 눈은 둘인데요?”

“그게 아니고~, 너 눈이 얼마냐고?”

선생님은 사오정의 대답에 까무러치고 말았다.

“예? 제 눈은 안 파는데요?”

개인별 다양한 특성을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요즘, 사회적 통념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공통주파수란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 사람 간의 거리를 좁히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문학과 예술마저도 계층별·세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소통’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고, 모두들 소통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각자 자신의 주파수에 다른 사람이 맞추어 오기를 바란다. “외롭다”라거나 “고독하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주파수를 다른 사람에게 맞추어 볼 생각은 하지 않는다.

고등학교 시절, 밤 10시를 기다려서 <별이 빛나는 밤에>를 듣기 위해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던 그때가 그림다.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바람개비를 돌리는 방법은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 데일 카네기 -



전환점(轉換點)

배나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다보면 바다 한가운데에 '날짜변경선'이란 선을 넘어간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엔 날짜가 하루 뒷걸음질 치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 날짜가 앞으로 건너간다. 지리적인 가상의 선 하나가 이쪽은 오늘이요, 저쪽은 어제라는 식으로 시간을 쪼개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하다.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면 '전이고도(轉移高度)'라는 가상의 경계선이 있다. 날짜변경선처럼 시간이 좌지우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경계의 위아래는 따라야 할 규칙과 기준이 달라진

다. 전이고도 위쪽에서는 표준대기압을 기준으로 한 고도를 적용하고, 그 아래에서는 각 지역별로 측정된 대기압을 기준으로 고도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에서는 1만 4000피트가 전이고도인데, 이 고도를 통과할 때엔 고도계에 수정된 대기압 수치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간단한 조작이지만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항로비행을 하는 비행기끼리 설정 고도가 맞지 않아 충돌하거나 착륙단계에서 고도를 잘못 판단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적용되는 기준이나 규칙이 달라지는 전환점은 우리의 삶에서도 만난다. 특히 학생의 신분에서 취업을 해서 일반인으로 바뀌는 시기가 인생 전체를 볼 때 중요한 전환점이 아닐 수 없다. 부모의 보살핌과 감독에서 벗어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엄중한 지점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요즘 젊은이들에게 이 전환점의 고도가 더 높아지고 어려워졌다. 취업을 위해 1~2년은 보통이고 3~4년씩 고통스러운 '취업준비생'으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여러 가

지 사회문제의 시발점이 되고 있지만 별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스물일곱 살이 돼서야 대학을 졸업한 내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4학년 때부터 시작한 ‘취업문 뚫기’ 작전을 2년이 넘도록 성공하지 못해 마침내 엄마가 나섰다. 유통업계의 대기업 임원에게 부탁해 겨우 서류심사를 통과했고, 두 차례의 면접시험도 무난하게 통과했다. 형식적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던 마지막 임원진 면접만 남았을 때, 이제 다 된 줄 알았다. 아들은 친구들에게 밥을 사기도 했단다. 하지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린 결과가 되고 말았다. 외모나 성격이 일선영업직에는 안 맞을 것 같다는 면접관의 평가로 인해 또다시 고배를 마셔야 했다. 아들은 어느 때보다 큰 충격을 받았는지 이틀 동안 꼬박 방안에 틀어박혀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자기를 위해 힘써 준 대기업 임원의 집을 찾아갔다. 탈락했다는 좌절감과 마지막 문턱에서 미끄러진 억울함을 토로하러 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집 안주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꽃다발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그 사실을 우리 가

족은 아무도 몰랐다.

이후 아들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몇 달 동안 이곳저곳 동분서주하더니 결국 의료 분야에서 꽤 탄탄하다고 알려진 중소기업에 당당히 취업을 했고, 지금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 아들은 자신의 전환점을 그렇게 통과했다. 대기업의 최상위급 임원까지 나서서 도왔지만 또다시 탈락의 고배를 마셨을 때, 아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좌절감이나 억울함을 토로해 자신의 무능함을 감추려 한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새로운 용기를 얻는 기회로 삼았다. 그 일을 계기로 아들은 한 단계 성장했다.

**행복의 문 하나가 닫히면 다른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닫힌 문을 너무 오래 바라보느라 열린 문을 보지 못한다.**

- 헬렌 켈러 -

김영주 방송작가

- ▼ JTBC <김제동의 토틈유>
- ▼ 저서 <웃음의 현대사> <일인자 유재석> 등 다수






I Love Korea

한국을

사랑합니다

- 말뚝이

우리나라 탈놀이에서 맹활약하는 인물(?)이 '말뚝이'다. 서민들의 대변자로 거침없이 행동하며, 해학적이고도 풍자적인 대사로 관중들을 매료시킨다. 특히 1인 다역을 하는 만능 탤런트로서 인기가 높다. 이와 같이 지배계급에 대한 비판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등을 겪은 후 서민문화의 주류를 이루는 주제로 자리 잡았다. '말뚝이'라는 이름은 말고삐를 잡고 다닌 데에서 유래한 듯하다.





누구나 가슴속에 마이크 한 개 정도는 있다

“예수님, 부처님이 왜 슈퍼스타인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분들을 모시고 존경하는 걸까요. 그분들에게 기도하는 걸까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말씀도 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닐까요.”

방송인 김제동의 말이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하는 것 보다는 들어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어지간하면 이런 경험들 있지 않나. 학교 다닐 때 가장 살 떨렸던 순간은 선생님이 자신을 쳐다보며 지목할 때가 아니었던가. 자신의 번

호가 그날의 날짜와 같기라도 하면 어찌나 떨었던가.

이런 연구결과도 있다. 사람이 가장 크게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은 다중 앞에서 말을 해야 할 때라는. 그만큼 우리는 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좋게 보지도 않았다. 어릴 때부터 '말 많이 하면 공산당'이라거나 '말 잘하면 사기꾼'이라는 얘기를 적잖이 들었고, 밥 먹을 때는 입 닫고 조용하게 숟가락질만 해야 어른들에게 칭찬받았다. 그래서인지, 나도 말을 하기보다는 듣는 쪽에 가까웠고, 손을 들기보다는 고개를 숙이는 무리에 속해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JTBC의 <김제동의 토틈유>라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내 생각이 맞는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매주 느끼곤 한다. 짜인 대본이 없고, 오고 싶다고 신청하신 분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았을 뿐인데, 청중은 손을 들었고 스케치북에 글을 써서 높이 들었다. 사람들은 말을 하고 싶지 않거나 못해서가 아니라, 말을 할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없었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주야장천 예수님과 부처님만 찾았던 것이다. 알고 보니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가슴 안에 묵직한 마이크 한 개씩 넣어 놓

고 있었다. 눈치 보지 않고 가슴을 열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혹은 누군가가 편한 미소 지으며 마이크를 건네면, 조금은 주저하다가도 이내 자신 안에 꺾꺾 눌러 담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풀어헤쳐 놓는 신비로운 장면들을 매주 목도하고 있다.

“시어른에게 잘하는 우리 딸을 그동안은 자랑해 왔지만, 사실은 그만 좀 하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울산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인데요. 사실은 길치랍니다” “아버지가 다가오면 짜증을 대는데요. 실은 좋아해요” “집에 오면 소파에 앉아 게임만 하는데요. 아내나 자식이 말 걸어 주기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청중(聽衆)’이 아닌 ‘화중(話衆)’이라 부르는 그들의 마이크는 언제든 이야기를 들려 줄 준비가 돼 있었다.

〈대통령의 글쓰기〉 저자 강원국은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입력만 해 왔다”고 얘기한다. 입력은 읽기, 듣기다. 이제는 출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출력은 말하기와 쓰기다. 말을 하면 생각이 정리되곤 한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 깨진다고 홍보지 말고 남자 둘만 모여도 대접을 박살내야 한다. 아직 나에게는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말하기는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하는 것

은 아니다. 스스로에게 해도 된다.

성철 스님 살아 계실 때, 그분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과정이 있었다. 3000배를 해야 한다는 것. 나는 108배는 해 봤기에 최소한의 짐작은 할 수 있다. 3000배가 얼마나 힘들지. 그런데 스님을 만나고자 하는 분들은 삶의 절박함이 상상을 초월하기에, 그 어려운 3000배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다. 끼니를 거르고 온몸에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무릎은 물론 온몸의 관절과 근육이 고통에 비명을 질러야 하는 24시간, 48시간에 걸친 고행의 지난한 과정을 기어이 완수하고 나면, 그들은 어찌된 일인지 기다리고 계실 성철 스님을 찾지 않고 돌아간다고 한다. 3000배를 하는 동안 자신을 움아매고 있던 문제들에 관한 답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이다. 처절한 자문자답의 과정에서 스스로 영켜 있던 실타래들이 풀렸으리라.

그렇다. 말해야 한다.

**꼭 바뀌어야 할 것은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이건만,
사람들은 자신의 삶 전체가 바뀌기를 바란다.**

- 예반 -



버스에서 만난 천연기념물

며칠 전 버스에서 참으로 예쁜 여자를 봤다. 내가 예쁘다고 생각한 것은 그녀의 얼굴이나 몸매가 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다고 스타일이나 패션이 마치 모델 버금갔다는 것도, 얼굴이 배우나 미스코리아 뺨쳤다는 의미도 아니다. 하고 있는 행동이 참 예뻐다. 아니 예뻐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했다. 아름다웠다. 자꾸만 그녀 쪽을 힐끔거리지 않을 수 없게 했다.

도대체 그녀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고? 신문을 보고 있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녀는 종이신문을 들고 있었다. 게다가 내가 좋아하는 논조의 기사를 자주 신

곤 하는 신문이었다. 맨 뒤의 바로 앞좌석에 앉아 있는 그녀는 양손으로 잡고 있는 신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고, 볼펜으로 이곳저곳 밑줄을 그었고, 때때로 여백에 메모를 했다. 마치 신문을 통해 공부를 하는 느낌이었다.

그녀만 뚫어져라 바라보면 이상한 남자로 의심받을 수 있기에 안 보는 척하면서 수시로 고개를 돌려 그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나이는 2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보였다. 대학생 아니면 대학원생이라는 얘기다. 그 버스는 일산에서 출발해 신촌으로 가서 돌아오는 노선이었기에 만약 학생이라면 연세대나 이화여대 혹은 서강대에 다니는 것은 아닐까 추측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나의 학벌지상주의는 단호히 배격돼야 한다. 그녀는 학생이 아닐 수도 있으며 행선지가 전혀 다른 곳일 수도 있다. 신촌에서 내릴 수도 있고 환승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신촌 훨씬 전에 내렸을 수도 있다.)

나는 버스나 전철을 이용하면서 종종 종이신문을 보는 편이지만 종이신문을 보는 젊은 사람을 본 것이 도대체 언제쯤인지 모르겠다. 그래서인가, 종이신문을 보고 있는 그녀가 눈에 확 들어온 것이고 신문에도 관심이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집중하

고 있는 지면은 정치면이었다. 한층 더 예뻐 보였다. 이것 또한 편견일 수 있겠지만 20대 청년이 신문을 보면 아무래도 정치나 사회 혹은 경제 분야보다는 문화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다. 그래서 정치면을 보며 마치 공부라도 하는 양 전투적으로 신문 읽기를 하는 젊은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 사회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청춘의 표정이 보인 것이고, 그런 모습 자체가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지기에 그날 나의 시야에 포착된 그 장면이 이리도 흥분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전철이나 버스에 타면 보이는 사람들 옆에 아홉은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나머지 한 명은 책을 보느냐고? 안타깝게도 아니다. 잔다. 그만큼 책을 보는 사람들을 점점 만나기 힘들다.

2000년대 초반 MBC에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최초의 공익 버라이어티라는 평가를 받은 프로그램이었다. 코너가 여럿이었는데 그중 '책책책, 책을 읽읍시다'라는 코너도 있었다. 1991년 KBS 대학개그제에서 배출된 동기였던 유재석과 김용만이 진행했는데, 두 사람이 거리에 나가 혹은 전철을 타서 그날의 주제로 정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미션을 완수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책을 읽은 사람에게는 상으로 책이 주어졌다. 수백 권의 책들이 꽃힌 책꽂이에서 주어진 시간 안에 자신의 힘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만큼의 책을 주었다. 만약 그 프로그램을 2018년 지금 다시 만든다면? 이제는 특정한 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미션은 포기해야 할 듯싶다. 그냥 종이책을 읽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을 미션으로 해도 방송 분량은 충분히 나올 듯하다. 그만큼 종이책을 읽는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이다. 그러니 버스 안에서 종이책도 아니고 종이신문을 보는 젊은 여성을 만났으니 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겠는가. 그녀의 모습을 몰래 사진 찍어 두고두고 보고 싶은 마음 간절했지만 자칫 현행 몰카범으로 몰릴 수도 있기에 마음으로만 간직했다.

그날 나는 버스에서 천연기념물을 목도했다.

사람들이 꿈을 이루지 못한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를 바꾸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 존 맥스웰 -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충성! 뒤에 계신 분은 제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정말입니까?”

“어떻게 아들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모르겠습니까? 확실합니다!”

“고향이 어딥니까?”

“예, 서울입니다!”

“으이구, 어머니는 강원도에서 오셨다잖아요. 들어가세요!”

MC 이상용은 서 있는 장병들에게 뒤에 계신 분이 왜 자신의 어머니라고 확신하는지 묻고 또 묻는다. 대부분 폭소가 터진다.

군기 바짝 든 표정으로 경례하는 또 한 명의 병사.

“뒤에 계신 분이 어머님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뒤에 계신 분은 제 어머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왜 나왔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입대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듯해 한말씀 드리고 싶어 올라왔습니다!”

웃으며 보고 있던 객석의 병사들이 숙연해진다.

“어머니, 먼저 가 계신 아버지하고 잘 계시지요? 저는 형님들이 잘 보살펴 주셔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행복하십쇼, 어머니. 충성!”

앉아 있던 병사들이 다들 일어나 눈물의 기립박수를 보낸다.

현재 군 생활을 하고 있을 장병들의 대부분은 군인이 출연하는 방송 프로그램 하면 <진짜 사나이>를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1989년에 시작한 이 프로그램, <우정의 무대>가 있었다.

<우정의 무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리운 어머니’ 코너를 떠올린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다. ‘장기자랑’ 코너는 장병들의 개인기의 재미 여부가 관건이었고, ‘병사의 애인’은 장병과

애인들이 방송에서는 아마추어다 보니 별 재미가 나오지 않았다. 만나고 싶었습니다라는 코너는 어떤 병사의 아내인지를 맞히게 하거나 부대 내에 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분들을 맞히는 내용이었는데 큰 재미는 없었다. 대안을 모색해야 했다.

회의 중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군대 있을 때 누가 찾아오면 제일 기쁘지?” 답은 금방 나왔다. 엄마. 엄마였다. 가장 중요한 콘셉트가 나왔으니 남은 것은 틀이었다. 결국 주인공 장병의 어머니를 몰래 모셔 와서 무대 뒤에 숨긴 다음 공금증을 최대한 유발한 뒤 공개하는 방식으로 틀을 잡는다.

만약 어머니 코너에 이 노래가 없었다면 그렇게까지 대박이 났을까?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 보고~”로 유명한 ‘그리운 어머니’. 이 노래도 코너의 처음부터 같이 부른 것은 아니다. 제작진이 논산훈련소를 갔을 때 한 조교가 부르던 노래가 있었다. 그 노래만 들으면 훈련병들이 울음바다가 되곤 했다. 가사와 곡조가 슬펐다. 여기에 해병대 모 사단에서 내려오는 구전가요가 결합돼 최종 완성된 노래가 ‘그리운 어머니’다.

‘그리운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주인공 장병의 어머니를 봉

고차에 태워 부대까지 모시고 와야 한다. 부대 담당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수십 명의 후보들을 놓고 제작진은 지역과 스토리 등을 고려해 섭의를 하는데, “여보세요? 아드님이 지금 군에 있죠? 저희가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면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당시 봉고차에 여성을 태워 납치하는 인신매매범이 많았기 때문이다.

필자도 <우정의 무대> 작가를 한 경험이 있다. 매주 전국 곳곳을 돌며 부대를 찾았고 연병장에서 수많은 장병들과 웃고 울었다. 무대 뒤에 몰래 계셨던 어머니가 누구의 진짜 어머니인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어머니 혹은 엄마를 목놓아 크게 불러보고 싶었던 것이다. 바로 그런 힘이 전국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게 한 것이다.

지금 열심히 땀 흘리고 있는 장병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훈련이 고되고 고참에게 혼나고 자괴감에 빠지는 순간이 있더라도 어머니만 떠올리면 다시 주먹을 불끈 쥘 것이다. 그렇게, 어머니는 대한민국 강한 국방의 일등공신이다.



내가 타는 버스에는 '비즈니스석'이 있다

버스보다 전철을 선호했던 때가 있었다. 첫째, 지하로 들어가야 만날 수 있었기에,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세계에 들어가는 느낌이 있다. 둘째, 도시적이다. 시골을 비하하려는 얘기가 아니다. 도시에서 태어났고 죽 살아왔기에 도시를 벗어나면 불편했고 도시 안에 있으면 편했다. 전철은 도시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대중교통이었다. 셋째,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다. 여름철엔 피서지였고 겨울철엔 따뜻한 안방 같았다. 넷째, 움직이는 도서관이다. 정작 숨죽인 공간인 진짜 도서관에서 이상하게도 집중이 잘 안 된다. 어느 정도는 흔들림이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철은 적어도 내게는 최적의 독서공간이다. 다섯째, 약속시간에 늦을 걱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는 존재다. 목적지까지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는 답이 나와 있다. 사고만 아니라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만 아니라면, 원하는 시간에서 오차범위 5분 이내다. 이렇게 전철은 나를 위한 공간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전철보다 버스를 좋아하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지하로 들어가야만 탈 수 있다는 점이 꽤 귀찮아졌다. 환승을 하기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아까워졌다. 지상의 풍광을 보기 쉽지 않고 이동하는 대부분을 지하에 있어야 해서 답답함을 자주 느꼈다. 전철 애플리케이션에서 보여주는 도착 예상시간이 10분가량이나 차이 날 때가 적지 않았다.

이런 심정의 변화가 내 안의 무엇인가가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버스의 시설이나 노선 등이 개선된 때문인지, 그도 아니면 전철이 노후화돼 그런 탓인지 잘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집에서 일터로 이동하는 노선에서 버스를 타는 게 조금은 더 편리해졌다는 점이다. 여기에, 아마도 버스를 더 자주

이용하게 되면서 ‘이왕 타는 거 조금이라도 재미있게 버스를 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내가 정한 몇 가지 설정(?)이 나의 버스 사랑을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다.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다.

내가 타는 버스에는 좌석등급이 있다. 이코노미·비즈니스·퍼스트다. 나란히 붙어 있는 2인석에 먼저 탄 승객이 앉아 있고 남아 있는 옆 자리에 앉으면 이코노미석이다. 비즈니스석은 1인석에 홀로 앉아서 갈 때다. 퍼스트클래스, 즉 일등석은 2인석에 혼자 앉아 갈 때를 말한다. 정답은 없다. 내가 이렇게 정했다.

버스가 오면 오늘은 어떤 좌석에 앉게 될지 궁금해하며 올라간다. 승객만 별로 없으면 처음에는 이코노미에 앉았다가 비즈니스 혹은 일등석으로 셀프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좌석은 비즈니스석이다. 버스가 다 같은 구조는 아니지만, 내가 자주 타는 버스에서는 맨 뒷자리 바로 앞줄에 양쪽으로 1인석이 창가 쪽으로 있다. 그 좌석이 나만의 명당이다. 이런 나만의 좌석놀이가 버스를 좀 더 좋아하게 만든 듯싶다.

누군가 내게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 혹은 무엇을 할 때인가” 라고 묻는다면, 늘 준비돼 있는 대답이 있다. ‘일하러 나가는 아침

버스에서 나만의 비즈니스석에 앉아 신문 혹은 책을 볼 때라고. '살살 흔들리며 천천히 앞으로 향하면서 가끔 고개를 돌려 창밖 거리의 풍경을 넋 놓고 볼 때'라고. '무언가 뇌리를 스치는 게 있을 때 휴대전화를 꺼내 메모장을 열고 글쓰기를 할 때'라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모든 버스에서 와이파이와 배터리 충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에 그저 안전하게만 달려갔으면 족하다는 소망으로 마무리해 본다.

장병들도 휴가 나가면 자기만의 버스 혹은 전철 놀이를 해 보면 어떨까.

**행복한 사람은 특별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마음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 휴 다운즈 -



죽음의 공포

2006년 무렵, 내 이름으로 된 책을 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소재를 찾아다닐 무렵이다. 당시 음식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기에 베스트셀러 <총각네 야채가게>처럼 어디 죽여주는 스토리 있는 맛집 없나 두리번거렸고 마침내 한 집을 만났다. 신촌의 후미진 뒷골목에 있는 돈가스 집이었다. 테이블은 네 개, 인터넷을 통한 예약제, 일반적인 돈가스보다 두세 배나 높은 가격을 매긴 집. 그야말로 문턱이 높고, 불친절한 집이었다. 하지만 사장님의 자부심은 하늘을 찔렀다. 40대 중후반의 그는 마치 돈가스업계의 스티브 잡스 같았다. 한마디로 스토리텔링이 풍부한 집이었다.

결심했다. 사장님의 스토리로 책을 쓰고 싶다는 얘기를 하기로. 어느 날 밤 10시쯤. 사장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용건을 꺼냈다.

“사장님, 이 집 이야기로 책 한 권 쓰고 싶어요. 허락해 주시겠어요?”

사장님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짓더니 입을 열었다.

“사실 언젠가는 이런 순간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 스토리를 글로 표현해 줄 작가를 만나기를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었다. 바로 의기투합했다. 그때 시간이 대략 밤 11시. 나는 슬슬 일어나려고 준비하는데 사장님이 제안을 했다.

“김 작가님, 나는 사실 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기로 결정하면 의식을 치러야 해요.”

“의, 의식요? 그게 뭐, 뭘데요.”

“혹시, 검룡소라고 알아요?”

처음 들어본 그 이름 검룡소는 한강의 발원지란다. 강원도 정선의 산에 있는. 자신은 이 돈가스 집을 내기로 결심하고 나서도

다녀왔고, 뭔가 삶의 전환점을 줄 것 같은 결정을 하면 그곳에 가서 첫 물을 마신다는 얘기였다.

“네... 저도 가 보고 싶네요. 그럼 언제...?”

“지금요. 우리 막 의기투합했으니까 지금이 딱이죠. 제 차가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면 4시간이면 충분할 거예요. 운전은 교대로 하고 휴게소 한 번 들르고요.”

그런 상황까지 갔으면 거절하는 것도 이상했다. 아내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았다. 은근히 설레기도 했다. 한 밤중에 강원도 여행이라. 사장님과 나는 강원도 정선을 향해 출발했다. 그때가 대략 자정 조금 전이었을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가면 꼭 사는 게 있다. 호두과자. 보통은 2000~3000원짜리 봉지에 든 것을 사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박스에 든 5000원짜리를 샀다. 4시간 정도 걸려 도착했고 그야말로 깜깜 그 자체였다. 휴대폰 전등으로 비추니 '검룡소'라고 돼 있고 설명글도 있었다. 그러나 다 온 것이 아니었다. 대략 수백 미터를 산 속으로 올라가야 한단다. 뭐 어찌겠는가. 사장님과 나는 칠혹같이 어두운 깊은 산 속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나 갔을까. 1미터 앞도 식별하기 힘든 그야말로 깜깜한 산 속. ‘누가 죽어도 전혀 모르겠네’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고, 그때부터 나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지근거리에서 걸어가고 있는 사장님은 1미터 80센티미터를 훌쩍 넘는 거구의 남자였다. 성격은… 일반적이지 않았다.

‘아… 이 사장님이… 설마…?’

‘혹시 내가 그동안 잘못된 게 있었나… 실수한 게 있었나… 있다면 그게 뭘까….’

나의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있었고 옆의 그 남자는 거친 호흡을 내쉬며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아냐, 꼭 이유가 있어야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아니지. 사이코패스, 포라이라면 충분히….’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휴게소에서부터 내가 운전 을 해서 오른쪽 주머니에는 자동차 키가 있었고, 한 손으로 호두과자 박스를 짊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다였다.

‘박스를 사서 다행이다. 꽤 두꺼우니까 세계 치면 통증이 없지

는 않을 거야. 역시 차 키가 무기 대응은 되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싸움으로 그 남자를 이길 확률은 10%도 안 됐다.

‘내가 그동안 뭘 잘못된 거지. 그래, 여기까지 잘 살아온 거야. 힘들었는데 뭐 잘 된 거야. 아내랑 아이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뭐 나보다 나은 놈 만나면 되는 거지… 흑, 흑, 근데 진짜 여기서 죽기 싫는데… 아직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 후회와 한탄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땀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온몸은 후들거렸다. 그때였다.

“다 왔어요, 작가님. 소리 들리죠?”

졸졸졸졸졸.

몇 걸음 더 올라가니 샘이 있었다. 정말, 물이 나오고 있었다. 이 물이 흐르고 흘러 한강이 된단다. 진짜 그곳은 검룡소였다. 바가지도 있었다. 사장님이 한 바가지 떠서 마시고, 나도 한 바가지 아니 두 바가지, 세 바가지 마셨다. 무지 더웠으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뜨겁게 악수하고 포옹했다. 그리고 나는 잘 살고 있다. 무사히.

그때 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아직도 미스터리다. 확실한 것 하나는, 죽음의 공포를 느낀 후에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됐다는 것이다. 세상사,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 하나 더. 평소에 운동은 좀 해야겠다.

가장 훌륭한 사람도 발을 헛디디며, 가장 조심스러운 사람도 넘어진다.
한 번도 잘못을 범한 일이 없는 사람은 인간 이상의 존재다.

- J. 펴프렛 -



사람 구경

사람 구경을 좋아한다. 혼자 전철이나 버스에 탔을 때, 카페에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힐끗거린다. 옆 테이블에서 소리라도 들리면 귀를 쫑긋한다. 가까운 좌석에서 대화가 들려오면 휴대폰이나 책을 보는 척하면서 듣는다.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대화를 엿듣는 것을 좋아하는 셈이다. 그날은 아침에는 전철, 저녁에는 버스에 탔는데, 두 곳에서 보기 드문 경험을 했다.

출근 시간을 피해서인지 전철 안이 한산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잠시 후 누군가 내 오른쪽에 앉았고 나

는 무슨 팟캐스트를 들어볼까 살펴보는데, 그때였다.

“이번 정차역은 매봉, 매봉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번 정차역은 압구정로데오, 압구정로데오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번 역은 매봉역이 아닌데... 옆을 보니 한 청년이었다. 전철 안의 사람들 누구나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소리였다. 양손에는 확대하고 코팅까지 한 수도권 전철노선도를 들고 있었다.

“이번 정차역은 잠원, 다음 정차역은 신사, 그 다음 정차역은 압구정...”

각 역마다 처음 탄 승객들은 뭘 소리인가 돌아봤고 어떤 중년 남은 웃음을 터트렸다. 그분과 눈을 마주치고 같이 웃고 싶었지만 자칫 청년의 마음이 상할까 봐 그러지 못했다. 들키지 않게 고개를 틀어 전철노선도를 쳐다봤다. 여기저기 메모들이 돼 있었다. 옆모습으로 보면 나이는 많이 봐야 30대 초반, 표정은 맑았다. 호리호리한 몸이었다. 전철카드가 들어가 있을 지갑을 목에 걸고 있었고 끈에는 'korail'이라고 쓰여 있었다. 전철에 얽힌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했다. 물어봐야 하나... 종로3가역에 왔고

나는 환승을 위해 내릴 준비를 했다. 왼쪽 문이 열리고 나는 내렸고 그 친구도 내렸다. 물어봐야 하나... 하는데, 쏟아져 나오듯 달려갔다. 자신이 1호선으로 갈아타실 분이었음을 온몸으로 증명이라도 하듯이...

저녁 버스 안. 내가 가장 좋아하는 좌석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몇 정류장 지났을까.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내 앞 자리에 앉았다. 가방이 그녀 뒷머리를 건드리지 않게 주의하며 휴대폰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디쯤이었을까, 버스가 경적을 크게 울렸다. 옆을 보니 한 승용차가 바짝 붙어 있었다. 이내 다시 간격이 벌어졌다. 그때였다. 그 여자는 갑자기 창문을 열더니 승용차를 향해 쌍욕을 해댔다. 그 차는 이미 저만치 앞서 갔는데 말이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다시 정면을 보았다.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녀는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다. 속삭이거나 구시렁대는 정도의 볼륨이 아니었다. 버스 승객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었다. 문장의 약 30% 지분은 욕설이 차지했다. 70% 정도 지분의 대상은 누군지 알 수 없는 어떤 남성이었다. 여자 조

심하랬는데, 술 조심하랬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비난이었다. 이 어폰을 뺐다. 아니 팟캐스트 정지 버튼을 눌렀다. 다행히 뒤돌아 보지는 않았다. 남성 혹은 남자들을 향한 욕은 계속됐다. 특이한 것은 이런 문장이었다.

“그러게 남자는 자고로 세 가지를 조심해야 해. 자나 깨나 여자 조심, 술 조심, 간첩 조심!”

내 귀를 의심했다. 세 번째 조심 대상으로 거론된 것이 놀라웠다. 간첩 조심이라니. 앞으로 나와 힐끔 쳐다봤다. 아무리 많이 봐 줘도 30대 중후반이었다.

그녀의 욕은 버스와 함께 앞으로 갔고, 아쉽지만 나는 중간에 내렸다. 그래, 여자 조심하고 술 조심하자.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기도하자. 언제 다시 보면 꼭 물어봐야겠다. 간첩 때 문에 크게 당한 적 있었는지를.

지금도 ‘간첩 잡아 휴가 간다’는 생각을 하는 장병이 있는지 모르겠다. 주변을 경계해야 한다. 남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사람 구경은 좋은 구경이다.



부모님 인터뷰

1999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기침이 꽤 오래 잦아들지 않아 건강검진도 할 겸 종합병원을 찾았는데 웬걸, 폐암 말기였다. 항암 치료를 본격적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던 중 결국 눈을 감으셨다. 선고 후 두 달 만이었다.

아버지에 관해 자식으로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살아계실 때 이렇다 할 대화를 한 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원래 그래'라는 말은 의미 없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씀이 별로 없으셨다. 큰소리 한 번 낸 적 없던 분이셨다. 그렇더라도 대화는 했어야 했다.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시절은 내가 철이 없었고 어렸다고 치더라도 재수를 하고 대학생이 됐을 때, 전역했을 때, 직업을 가지고 밥벌이를 시작했을 때, 결혼했을 때, 언제라도 내가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아버지와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일 수 있었다. 집 밖에서 일하실 때 문득 찾아가 한잔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었다. 그것을 하지 못했다. 그저 바쁘다는 이유로, 친구와 노는 게 재미있다는 핑계로, 나라를 걱정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밖으로만 돌았던 나를 원망한다.

크게 부족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머니하고는 조금이라도 대화를 했고, 인터뷰 형식을 빌려 질문을 던지고 답을 들었다는 것이다. 내가 진행자가 되고 어머니가 게스트가 돼 인터뷰를 진행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당신 삶의 개요의 개요라도 알았다는 것으로 아버지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의 일부나마 갚았다고 자위한다.

어머니는 1935년 북한에서 태어나셨다. 1930년 서울에서 태어나신 아버지와 부부의 연을 맺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외삼촌이 한 분 있었다. 어머니의 친오빠다. 그분의 아들과 자주 왕

래했기에 어릴 적부터 외삼촌을 잘 따랐다. 근데 당시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다가 사회에 나와 어느 날 문득 든 의문이 한 가지 있었다. 어머니하고 오빠가 성 씨가 다르다. 어머니는 최 씨, 삼촌은 윤 씨다. 친남매라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 혹시 드라마처럼 나도 출생의 비밀이라도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졌는데, 어머니를 인터뷰하고서 진실을 알았다.

1945년 광복을 맞고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에 전혀 다른 정치적 상황이 전개될 무렵, 북한에 살고 있던 어머니네 가족은 월남을 결심한다. 38선이 채 굳어지지 않았다는 1947년의 어느 시점, 어머니는 삼촌과 함께 단둥이 남으로 향하기 시작했는데 삼촌이 인민군에게 잡히고 어머니만 홀로 38선을 넘는다.

근데 두 사람은 어떻게 같은 서울에서 살 수 있게 된 걸까. 1950년 6월 25일 터진 6·25전쟁에서 삼촌은 인민군이 돼 내려왔고 미군에 잡혀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잡힌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성 씨를 바꾸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다. 그래서 최 아무개였던 외삼촌은 윤 아무개로 성을 바꾸게 된 것이다.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의 삶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 현대사일 것이다. 나는 비록 절반밖에 하지 못했지만, 아직 두 분 다 살아계신 장병들이라면 휴가 때 집으로 가서, 전역을 하면 짬을 내어 꼭 저마다의 부모님들과 마주하기 바란다.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 어떤 과정을 거쳐 세상을 살아오셨는지 여쭙 보기 바란다. 어떻게 어머니를 만났고 사랑하게 됐으며 부부가 됐는지 들어보기 바란다.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신을 낳았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질문과 대답하는 시간을 꼭 마련하기 바란다. 그래야 나중에 나처럼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면서 '왜?'라고 하지만
나는 없는 현실을 꿈꾸면서 '왜 안 돼?'라고 말한다.

- 로버트 케네디 -



담배와 술에 관한 단상

“도대체 어떻게 담배를 끊은 거야?”

내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다. 대학 시절 내내 전혀 피우지 않다가 입대해 국가에서 하사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피우기 시작했던 것이 시작이었다. 사회에 나와 13년 동안 하루 평균 두세 갑을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피우다 확 끊은 것이 2002년 1월 2일이니까 벌써 16년이 넘었다. 끊은 순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기억하는 한, 단 한 개비의 담배도 물어본 적이 없다. ‘한 개비 귀신의 저주’를 익히 알고 있어서다. ‘딱 하나만 피우는 거야 별 일 있겠어?’ 하며 무심코 물었다가 십년공부 도로아미타불이

되는 신세 많이 봤기 때문이다.

내 주변만 해도 많은 이들이 담배를 끊었다가 피우고 몇 달 후 또 끊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입에 문다. 그보다 좀 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은 전자담배로 바꾼다. 동서도 목하 담배를 썬 가며 피우고 있는데, 냄새는 안 나지만 베란다에서 피우기라도 하면 단박에 엘리베이터 게시판에 대자보가 붙는단다. 주변을 둘러보면 확실히 예전보다는 흡연자의 비율이 줄긴 했다.

흡연자들이 설 곳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1990년대만 해도 사무실에서 회의하며 피우고 걸어가며 피우고 집에 들어가서도 피우고 자기 직전에 누워서 피우고 자고 눈 뜨자마자 손 뺀어 담뱃불을 붙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힘들다. 식당이나 술집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된 것은 오래됐고, 금연아파트 지정을 위해 주민들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진다. 최근에는 당구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오래전에 <일밤>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내가 대본을 작업했던 '금연주식회사'라는 코믹 드라마에서 그린 것처럼, 흡연자들은 지하로 숨어들어 마치 독립투쟁을 하듯 목숨을 걸고 담배를 피우는 세상

이 올지도 모르겠다.

그에 비해 술에 대해서는 어떤가. 내 생각은 담배가 갖는 위험성이 술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쪽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술에 관한 한 유독 관대하다. 술은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며 아직 마실 계획이 없는 아이를 술자리에 앉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TV에서 연예인들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며 얘기를 나눈다. 프로그램의 이름도 아예 <인생술집>이다.

TV 드라마에서 담배를 피우는 장면에서는 누가 봐도 담배라는 것을 전혀 ‘모르지 않게’ 담배 부분을 가린다. 하지만 술잔은 가리지 않는다. 술 마시는 장면은 비일비재하다. 술 광고모델이 되면 성공한 연예인으로 인정받는다. 외국에서는 저녁이나 늦어도 밤 10시에는 문을 닫는 술집들이 대부분인데 우리나라는 도시 어디를 가도 새벽까지 술 마실 수 있는 곳이 널려 있다.

‘사고를 치는’ 것은 술을 마시고 나서지, 담배를 피우고 나서가 아니다. “우리 언제 한번 ‘술’ 마셔요”라고 인사하지 “‘담배’ 피워요” 하지 않는다. 사람은 참 좋은데 주사가 있어 일을 그르치는 친구들은 적지 않지만, 담배를 많이 피워 업무에 차질을 빚는

친구는 보지 못했다. 담배는 끊어도 술은 못 끊는 사람이 더 많다. 어울려야 하니까. 사실 나도 그렇다. 담배는 끊어도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은 것은 없다. 근데 술을 끊으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될지 불안하다는 이유로 끊지 못하고 있다. 건강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담배보다는 술이 더 안 좋다. 그러니 담배는 어렵지 않게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한다.

나는 이렇게 해서 끊을 수 있었다. 친구 같은 담배를 끊으면 어찌될까 불안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예전에는 멋있었는데 그렇지 않음을 알았다. 금단 증상이라는 것은 의외로 없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담배 끊는 일, 그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최선을 다할 때만이 자신이 즐겁게 일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앤드루 매슈스 -



버스에 '벨'은 왜 있는 걸까

버스가 멈추고 뒷문이 열렸는데 내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내리시는 분 없으세요?”

기사가 볼멘소리로 말한다.

“죄, 죄송해요. 잘못 눌렀어요.”

40~50대로 보이는 여성이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한다.

“내리실 거 아니면 벨 누르지 마세요.”

버스를 타면 꽤 자주 보는 풍경이다. 반대로 승객이 벨을 눌렀

는데 기사가 정차하지 않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 상황은 승객이 벨을 진짜 눌렀는지를 두고 승객과 기사 간의 팩트를 둘러싼 논쟁이 오가기도 한다.

정리해 보자. 버스에 탄 승객은 자신이 이번 정류장에 내려야 한다는 의사를 기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벨을 눌러야 한다. 만약 벨을 누르지 않았는데 내리려고 한다면 기사의 말 공격을 감내해야 한다. 물론 눌렀는데 무정차할 경우는 기사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된다.

근데 말이다. 과연 그래야만 하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버스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고찰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대표적인 대중교통인 버스(전철은 논외로 하자)와 택시의 차이는 무엇인가.

버스는 노선이 있고 택시는 노선이 없다. 버스는 정해져 있는 노선에 내가 의지해야 하고 택시는 내가 노선을 정하면 기사는 따라야 한다. 그렇기에 버스는 요금이 저렴하고 택시는 높다. 타기 전에도 들은 다르다. 버스를 타려면 정차하는 노선의 한 곳(정류장)에 가서 기다려야 하고, 택시는 내가 있는 곳에서 지나가는

택시를 부르거나 오라고 주문을 하면 된다. 결국 버스는 정해진 노선에 따라 승객이 내리고 타는 장소인 정류장들이 있고 택시는 이용하는 승객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갈 수 있게 하는 대중교통수단인 것이다.

이 대목에서 버스 벨에 대한 나의 고민이 시작된다. 도대체 버스의 벨이란 왜 있는 것인가. 승객이 나서서 '저 이번 정류장에 내립니다' 라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정류장에 선다는 말인가.

만약 내린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승객이 없다면 버스는 해당 정류장에 멈추지 않고 가도 된다는 얘기인가. 그때 그 정류장에 그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만에 하나 벨을 누르는 승객이 없어 버스가 휙 지나가 그 버스를 타지 못했다면 그 승객이 입은 피해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경우는 내가 하도 많이 겪어 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르겠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 버스에 '벨'은 언제 생겼는지, 왜 생긴 것인지 이유가 있을 듯하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돈을 들여 그런 장치를 했을 리 만무하다.

내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던 때는 버스에 차장이 있었다. 대략 197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다. 그때 그 버스에는 벨이 없었다. 차장이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승객이 내리는지 혹은 타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도맡아 했다. 문제의 버스 벨은 차장이 없는 1982년 등장한 시민자율버스에서 처음 선보였다고 한다. 결국 버스 벨은 차장의 자리를 대신한 존재인 거다.

그렇다면 나의 문제의식은 해결이 된 것인가. 차장을 대신해 벨이 생겼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인터넷을 보면 시내버스 하차벨의 존재로 무정차위반, 승차거부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2016년 6월 부산복지개발원이 '부산복지발전을 위한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었는데 대상으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한 번 더 하차벨'이었다. 벨을 한 개 더 만들어 승객들이 미처 내리지 못했을 때 이 벨을 누르면 기사에게 긴급하게 알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고 대상까지 탔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버스 벨의 문제에 공감한다는 뜻이리라. 그렇지만 한 번 더 하차 벨로도 안 되면 어찌할 것인가. 벨을 하나 더 만들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

아직도 잘 모르겠다. 여러분이 전역하시면 알아 보시라. 휴가 나가 버스에 타면 기사님께 여쭙 보시라.

버릴 마음, 간직할 마음

사람을 대할 때는

일단 그 사람을 진실되게 믿어야 합니다.

의심은 번식력이 왕성한 병균과 같습니다.

일단 의심이 생기면

그것을 없애려 애를 써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생긴 미움은 오랜 시간 동안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움의 마음은

흐르는 물처럼 빨리 흘러 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마음 한구석에 머물게 해서는 안됩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상대뿐 아니라 자신까지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황금처럼 오래 간직할수록 더욱 빛을 냅니다.



후회막심 나의 군 생활

벌써 3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내가 군대에 들어갔던 때가. 1989년 7월에 입대해 1991년 9월에 전역했다. 27개월 복무했다. 지금 군에 있는 장병들은 놀라겠지만 당시에는 그 정도면 짧게 근무한 것이다. 대학에서 2학년까지 교련과목을 이수했기에 그렇지 않은 친구들보다 무려 3개월이나 먼저 나왔다. 나보다 80일 정도 먼저 들어와 있던 고참보다 열흘이나 먼저 나가던 순간, 나를 바라보던 부러움과 질시의 눈빛을 잊을 수 없다.

지금 누가 나에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나는 “군대 있을 때 좀 더 재미

있고 의미 있게 생활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당시에는 하루하루가 참 길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갈까 푸념만 했다. 나가서 무엇을 할까를 궁리하기보다는 ‘군에 오기 전에 참 잘나갔는데’ 하며 회고만 했다. 방위병들과 함께 지냈는데 그들이 퇴근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슬픔과 비통에 빠지곤 했다. 매일 시간대가 바뀌어 돌아오는 불침번 임무는 매일매일이 고역이었다. 그렇게 시계만 쳐다보며 보내기 일쑤였던 나의 군 생활이 무척이나 후회된다.

물론 오롯이 그렇게만 보냈다면 나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조금은 재미와 의미를 찾아보려 했다. 행정병으로 보직을 받았기에 내무반에서 있기 힘들면 작업을 핑계로 행정실로 도피할 수 있었다. 이등병 딱지를 떼고 조금씩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조금씩 확보되면서 외부에서 도서를 반입해 탐독하기도 했다. 이 자리를 빌려 당시 나와 함께 행정업무를 했던 방위병 강 아무개 군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읽고 싶은 책을 그 친구가 가져다 주었고 다 읽으면 다시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원래 하지 말라고 할수록 더욱 하

고 싶고 짜릿한 건가. 군대에서 야근야근 읽었던 행위가 지금의 책 읽는 습관을 만들어 준 것도 같다.

이렇게 나름대로 군 생활을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후회되는 것들이 적지 않다.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어차피 한 번은 경험해야 하는 시간과 공간을 왜 좀 더 알차게 사용하지 못했는지 통탄스럽다. 도대체 뭘 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후회하느냐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첫째, 체력을 단련하지 못했다. 군대라는 공간은 몸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거창하게 갈 것도 없다. 팔굽혀펴기라도 매일 조금씩 했더라면, 턱걸이라도 매일 올라갔더라면, 어차피 해야 하는 태권도라도 제대로 익혔다면 지금의 몸이 아닐 것이다.

둘째, 공부를 하지 못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책을 읽는 행위도 포함된다. 심심풀이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무엇인가 한 가지 분야라도 정해서 매일 조금씩 파고들었다면, 전역 후 나의 대학생생활은 달라졌을 것이다. 국문과를 다니다 군에 갔는데 어느 날 문득 한의사가 되고 싶었던 때가 있었다. 그때 관련 책들을

구해다가 열심히 봤더라면 내 삶은 달라졌을 것이다.

셋째, 나와 대면하지 못했다. 군대는 자의로든 타의로든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 하는지, 지금 여기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지 직면할 수 있는 기회를 꽤 만들 수 있다.

사실, 후회라는 것이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긴 하다. 다만 현재 군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장병들에게 오래전 군에 다녀온 사람의 낯두리라고 생각해 주기 바란다.

후회 리스트 하나 더. 길든 짧든 매일 글쓰기를 했다면, 아마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작가의 길을 걷고 있을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것이라는 박명수 어록이 있긴 하지만, 올해 들어 하고 있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지키고 있다는 데 스스로에게 위로를 보낸다. 자,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하자. 지금 있는 곳이 참 좋은 곳이다.

포기하지 말라. 저 모퉁이만 돌면 희망이란 녀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 사이트 시계타 -

박지영 방송작가

- ♥ MBN <판도라>
- ♥ SBS <식사하십니까?>
- ♥ tvN <쿨까당> <캐츠앤독스>
- ♥ KBS <퀴즈대한민국> 등






I Love Korea

한국을

사랑합니다

- 북청사자탈

북청사자놀이의 사자 가면을 북청사자탈이라고 한다. 북청사자놀이는 함경남도 북청군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해지던 놀이이며, 중요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됐다. 사자놀이의 특징은 쌍통소와 북으로 구성된 악대가 보여주는 북방 특유의 소리를 치는 데 있다. 북청사자놀이는 풍자보다는 사자춤의 묘기와 흥겨움이 위주로 돼 있다. 서민생활상 등도 찾아보기 힘들다.





‘알파고’와 함께 사는 세상

도구를 사용한 최초의 유인원이 등장한 때는 약 300만 년 전이다. 우리와 외모가 같은 인간은 15만 년 전에,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는 인간은 빠르면 7만 년 전에 비로소 등장했다. 지구 나이가 46억 년 정도라고 하니, 그에 비하면 7만 년의 인류 역사는 지극히 짧은 시간이 아닐 수 없다. 그 7만 년 동안 농경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 4차 산업혁명, 즉 인공지능 시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같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중 가장 강력하고 급진전되고 있는 분야는 인공

지능(AI)이라고 한다.

아직까지는 AI가 인간을 추월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미국의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자신의 저서 <특이점이 온다>에서 AI가 인간의 능력을 능가하는 시기를 ‘특이점’이라고 하고, 그 시기를 2045년으로 예측했다.

기술 발전 속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는 시점, 인간을 압도하는 능력을 갖춘다는 ‘특이점’의 시대. 지금이 2018년이니까, 커즈와일의 예측에 따르면 앞으로 27년 후엔 인간을 대신한 AI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과연 AI시대가 올까’라는 의심을 한 번에 깨뜨렸던 사건. 2016년 인공지능 알파고가 세계 최정상의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을 완벽하게 꺾었던 사건... 세기의 바둑천재가 컴퓨터에게 패했을 때의 당혹감이란. 그나마 컴퓨터의 오류(?)로 1승을 챙긴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랄까? 2017년 나온 슈퍼 알파고에 세계랭킹 1위 커제는 완패라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대국 중에 분개의 눈물을 흘렸을까? 이세돌 9단과의 대국 이후 1년 동안 셀프 대국을 통해 스스로 심화학습을

거쳐 '신선'의 경지에 올랐다는 알파고. 말 그대로 '특이점'이 제대로 온 것이다. 스스로 진화하는 알파고를 보니, 커즈와일의 예측이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물학적 인간의 조건을 뛰어넘는 미래 인류가 불과 30년 안에 나타날 수 있다니!

실제로 인공지능의 상용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말 한마디로 집 안의 모든 가전제품들을 컨트롤하는 AI.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자율주행차의 AI에 운전자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자동차법'을 개정했다는 소식도 들린다. 내가 출근한 동안 AI가 알아서 집안일을 척척 해 놓을 수도, 어쩌면 반대로 내가 집안일을 하는 동안 AI가 출근해 나 대신 일을 처리하고, 집으로 퇴근(?)할지도 모를 일이다.

인간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AI라면, 지금과 같은 가족 사회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닐까? 인류 멸망 같은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겠으나 허무맹랑한 생각이라고 치부하기에 왠지 찝찝하다. 순전히 기분 탓일까?

인류 역사를 흔들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50년 안에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옆에 남편을 대신해 AI가 앉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
하니 괜히 등 뒤에 식은땀이 흐른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평범함 속에서 로맨스를 찾는 맑은 눈을,
어린이의 순수한 마음과 단순한 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 필 -



어느 '수포자'의 고백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선생님이 계셨다. 하필 그 선생님이 담당하던 과목은 수학. 선생님께 잘 보일 수 있는 방법은 수학을 잘하는 것밖에 없었다. 다니던 학교의 수학 시험은 유난히 어려워 시험 평균 점수가 30점 대였다.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나 역시 30점대 언저리의 성적이었다.

‘이대로는 선생님 눈에 들 수 없어!’

엄마한테 졸라 수학 과외를 받았다. 나의 첫 과외선생님, 그에게도 나는 첫 과외제자였다. 의욕 넘쳤던 과외 선생님 덕에 두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다. 다른 과목보다 시간

도 두세 배 더 투자했다. 조금씩 자신감이 붙었다. 문제 내용을 이해하는 나를 보며 뿌듯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

드디어 결전의 날. 앞에서 뒤로 시험지가 넘겨졌다. 시험지를 받기까지 세상에서 태어나 그만큼 긴장한 시험은 없었다. 시험지를 받자마자 쓱 훑어보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아는 문제였다. 나이스~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계산하기 시작했다. 답이 나왔다. 사지선다 보기 중 맞는 답을 찾아봤다. 뭔가 이상한데? 답이 없다. 긴장한 탓에 계산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열심히 풀었다. 어라? 보기 중에 또 맞는 답이 없네? 뭐지? 콧잔등에 땀이 나기 시작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절망했다. 시험지는 계산한 흔적으로 새끼땀다. 하지만 보기 중에 맞는 답은 없었다...

흘러흘러 OMR지에 답을 마킹해야 할 시간이 왔다. 한 시간 동안 나는 뭘 한 걸까...?

사지선다(四枝選多):

[명사] <교육> 한 문제에 대하여 네 개의 항목 가운데 정답

또는 가장 적당한 항을 고르게 하는 방식. 또는 그런 문제.

수학에서 적당한(?) 답이라는 게 어디 있는가? 수학만큼 딱 떨어지는 답이 있는 과목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 왜 내가 계산한 답은 보기 중에 없는 것인가? 이상했지만, 시간이 없었다. 딱 떨어지는 답이 없었으므로 내가 계산한 답과 가장 비슷한 것을 골라 OMR지에 마킹했다. 한마디로 다 찍었다는 얘기다.

OMR지가 견히고 그대로 책상에 얹드렸다. 요새말로 '망(亡) 필(feel)'

그날 있었던 모든 시험이 끝나고 답을 맞춰 봤다. 제일 먼저 맞춰 본 것은 역시나 수학. 솔직히 흑시나 하는 마음도 있었다. '억세게 운이 좋을 수도 있잖아!'

정답 확인 결과~~~ 두둥!

과외받기 전 30점, 과외받은 후 16점.

시험 성적으로 잘 보이고 싶었던 수학선생님은 둘째치고, 과외선생님 얼굴 볼 낮이 없었다. 그분의 충격과 좌절감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 때문에 수학 과외를 포기할지도 모를 일이

다. 선생님께 전화로 사정이 생겨서 과외를 그만둬야겠다고 말했다. 시험성적을 묻는 말에는 “음… 잘… 본 거 같아요. 어버버버…” 했다.

그날 이후로 수학을 깨끗이 포기했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보다
‘어떻게 하면 귀중한 존재가 될 것인가’이다.

- 에드거 프리덴버그 -



‘중간کم플렉스’ 극복기

그림 잘 그린다는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듣고 자랐다. 고등학교 때까지 전문가에게 그림을 배운 적은 없었지만, 그림 좀 그린다는 자신감에 과감하게 미대 진학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남들보다 늦은 준비였다. 준비 기간은 2년. 학원을 다니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알게 됐다. 세상에 그림을 잘 그리는 ‘타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 좌절의 극치는 미대에 진학하고 나서였다. 동기들은 그림을 그야말로 푹푹푹푹 그려냈다. 아이디어 역시 반짝반짝 빛났더랬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림은 내 인생의 전공이 될 수 없

쟁구나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할 정도의 팡은 아닌지라 그럭저럭 수업시간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덧 졸업까지 하게 됐다.

다행히 취업시장에서 인기가 좋다는 디자인을 전공한 탓에 어렵지 않게 디자인회사에 들어갔다. '이제 적당히 회사 생활하면 되겠지' 하고 안도하기도 잠시. 딱 중간인 실력으로 버텨낼 수 있는 직업이 아니었다. 스멀스멀 불안감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디자이너 일을 그만뒀다. 그렇다고 무슨 큰 목표의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지금은 전공과는 무관한 직업으로 10년 넘게 밥줄을 연명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이 직군에서도 내 실력은 딱 중간이다.

뒤돌아보면 나는 언제나 딱 중간쯤에 속했다. 책을 좋아해서 독서를 즐기던 편이지만, 독서광에 비하면 중간쯤. 손재주도 있는 편이나, 잘하는 사람에 비하면 중간쯤. 요리를 할 줄 알지만, 매우 맛있다고 할 수는 없는 중간쯤. 뭘 시작하든 항상 중간쯤이었기 때문에 포기가 빨랐다는 것이 장점이라면 장점이랄 수도 있었다.

문득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고민한 적이 있다. 말하자면 ‘중간콤플렉스’랄까? 항상 중간쯤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내가 답답했다. 알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중간’에서 접었다. 고민에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중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니? 타고나는 거니? 노력이니?”라는 물음에 답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렇다. 내 주변 대부분은 나처럼 중간계(?)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다. 안심이 됐다.

‘모두 나와 비슷하구나.’ 뭘 하든 중간이라는 것이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그동안 나를 옥죄었던 알 수 없는 죄책감에서 벗어났다. 생각해 보니 말도 안 되는 불안감이었다.

누군가가 “너는 꿈이 뭐니? 어떻게 살고 싶어?”라는 물음에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요”라고 대답했던 나를 뒤돌아보니 답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결론을 내자 마음이 가벼워졌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제일 어려운 세

상 아닌가? 다 비슷하게 사는데... 나처럼 '딱 중간을 사는 인생'들에게 응원을 보낸다.

“우리는 어정쩡한 게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겁니다!”

꿈은 영원한 기쁨이자 결코 다 써 버릴 수 없는 재산이고,
해가 갈수록 활력을 주는 행운이다.

- 재클린 케네디 오나시스 -



‘주(酒)사’가 쇼핑인 여자

그날도 역시 1차를 마치고, 아쉬운 마음에 2차를 찾아 흥대 어디쯤을 배회했어요.

알뜰뜰한 술기운으로 여기저기 기웃대며 걸어갔죠.

이상한 동네잖아요. 흥대는. 술집, 옷집, 신발가게, 책방이 마구 혼재된 곳.

술집과 술집 중간쯤. 여자 구두를 파는 곳이 있네요.

쇼윈도 유리창에 붙어 있는 문구.

‘수제화 패밀리 세일.’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일단 그냥 들어가 봐요.

블링블링한 하이힐들 중 눈에 띄는 아이.

저짓말 조금 더 보태 주먹(?)만한 리본이 달린 12cm 굵, 블링블링 골드빛 하이힐.

신데렐라의 유리구두가 실제 존재한다면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225 사이즈 있나요?”

“235 사이즈 그거, 딱 하나 남았어요”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갖고 싶어요.

‘사이즈가 작게 나왔을 수도 있잖아?’ 일단 신어 봅니다.

역시나 너무 커요. 한발 내딛기도 전에 발이 빠집니다.

다들 빨리 술집으로 가자는 눈빛을 보내네요.

술기운에 용기가 생깁니다. “이거 주세요.”

다음 날 아침.

신발장 앞에 놓인 금빛 하이힐이 나를 쳐다보며 말하네요.

‘너한테 맞지도 않는 나를 이제 어쩔 거야?’

아직 술이 덜 깬기 때문일까요? 교환할 생각은 1도 없어요.

하이힐을 부여잡고, 구두 수선 집으로 갑니다.

구두 안쪽에 깔창을 넣고, 뒤꿈치 안쪽으로 패드를 덧댄다. 얼추 신을 만해졌어요.

찾아보면 길이 있기 마련이에요. 당당하게 골드빛 하이힐을 신고 출근을 합니다.

점심 때쯤 되니, 구두와 발이 따로 놓입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군.’

그날 저녁 나의 골드빛 하이힐은 그대로 신발장행.

아무리 신발장 깊숙한 곳에 숨겨둬도, 신발장을 열 때마다 ‘나 여기 있다’는 듯 금빛을 내뿜는 아이.

따가운 시선이 느껴집니다.

‘나를 이 어두운 곳에 처박아 두려고...’ 말이 길어지기 전에 얼른 문을 닫습니다.

문 너머로 ‘왕왕왕’거리는 소리가 들리네요.

어쩔 땐 그 아이에게 너무 미안해서 잠깐 꺼내 신어 보기도 해요.

내 발이 커졌을 리 만무한데, 이제는 딱 맞아졌을지도 모르는 듯한 희망.

역시나 안 맞아요.

주사가 쇼핑인 여자들을 조심해야 해요.

충분한 재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충분하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언제나 부족한 것이다.

- 목자 -



우리들만의 시간여행

2013년 개봉한 리처드 커티스 감독의 영화 <어바웃 타임>은 ‘인생 영화’ 중 하나다. 시간여행에 관한 이 영화의 줄거리는 대략 이렇다.

스물한 살이 된 팀(도널 글리슨)은 아버지(빌 나이)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다. 대대로 이 가문 남자들은 성년이 되면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인데, 그 방법은 의외로 단순하다. 어두운 곳에 들어가 두 주먹을 꼭 쥐고 돌아가고 싶은 순간을 떠올리면 되는 것이다. 역사를 되돌리는 일은 불가능하고 자신이 경험한 과거로만 돌아갈 수 있을 뿐이다.

모태솔로인 팀은 시간여행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데 쓰기로 한다. 영화의 대부분은 주인공의 운명적 사랑에 대한 얘기지만, 그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에 대해서도 꽤 묵직하게 다룬다.

운명의 사랑을 만나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중 청천병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 팀. 아버지 빌이 폐암으로 몇 주간의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된 것. 아들은 아버지에게 과거로 돌아가 담배 끊기를 원하지만 아버지는 시한부를 담담히 받아들이기로 한다. 이유인즉슨 폐암 발병 전의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아들 팀이 태어나기 전이라, 지금의 아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다. 절망스러운 가운데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

“내 아들.”

“내 아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뭐 하시고 싶은 거는요?”

“글쎄다. 한 가지 있긴 한데... 잠깐 산책 좀 했으면 좋겠다.”

팀이 대여섯 살쯤 무렵. 집 앞 바닷가를 함께 산책하던 순간으로 마지막 시간여행을 떠나게 되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선택한 가장 돌아가고 싶은 순간이 단지 아들과 바닷가를 산책하는 것이라니... 가슴이 먹먹해졌다. 생애 마지막 순간 지극히 평범했던 날로 돌아가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문득 우리 아빠에게 시간여행 능력이 있고,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으실까 궁금해진다.

내가 태어나던 날일까? 동생이 태어나던 날일까? 아니면 더 뒤로 돌아가 엄마를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일까? 사업이 한창 번창하던 폐기만만하던 청년 시절일까?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뤄 현관에 첫발을 내딛던 순간일까?

이런저런 생각 끝에 아마도 내가 돌아가고 싶은 과거와 비슷하지 않을까 짐작해 본다.

열 살 무렵 갑자기 생긴 여름휴가로 목적지도 없이 텐트 하나만 챙겨 떠났던 가족 여행. 밤에 도착해 계곡 어딘가에 급히 텐트를 치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말도 안 되는 풍경을 보고 가족 모두 눈이 동그래졌던 순간. 비 오는 바닷가에서 끓여 먹은 때

늦은 라면. ‘후루룩 짹짹’ 소리밖에 안 들리던 그때. 결국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가족이 함께 있고, 같은 것을 보고, 함께 둘러앉아 뭔가를 먹고 있는 평범한 날이지 않을까?

내가 기억하고 돌아가고 싶은 날이 아빠도 돌아가고 싶은 날 일 것 같은 확신이 든다.

그대가 자신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 베토벤 -



이런 사람 어디 없나요?

날씨가 좋아 갑자기 내가 생각났다며 문자 보내는 사람

오다가 주웠다면 쿨하게 꽃 한 송이 내밀 줄 아는 사람

가만히 내 얼굴을 쳐다보다 씩 웃는 사람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

손톱이 항상 깨끗한 사람

음식 맛에 까다롭지 않은 사람

흰색 팬츠를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

나른한 오후 2시 시원한 커피로 잠깐의 여유를 즐길 줄 아는
사람

길거리 간식 구입용으로 몇 천 원은 주머니에 가지고 다니는 사람

문자 보낼 때 한글 맞춤법 틀리지 않는 사람

밥 먹을 때 '잘 먹겠습니다'라고 외치는 사람

가게를 나갈 때 뒷사람을 위해 문을 잠시 잡아 주는 사람

어린이와 눈높이를 맞추어 줄 아는 사람

업종불문하고 10년 이상 단골집이 있는 사람

만원 버스에서 백팩을 가슴 쪽으로 고쳐 메는 사람

담배꽂초를 아무 데나 버리지 않는 사람

주변 사람들 보조에 맞춰 술을 마시는 사람

음식점에서 음식이 늦게 나와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

바지주머니가 불룩하지 않은 사람

밥 먹을 때 휴대폰 보지 않는 사람

꽃과 나무 이름 열 개 정도는 아는 사람

운동을 잘하지 않아도 응원하는 야구팀 또는 축구팀이 있는 사람

나이가 어리다고 반말하지 않는 사람

향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옷에서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거는 사람
독서 영화 음악 외에 취미를 가진 사람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욕설을 입에 담지 않는 사람
미술관 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
길을 잘 찾는 사람
좋아하는 계절이 있는 사람
자기만 알고 있는 맛집이 세 개 이상 있는 사람
대화가 없는 것을 어색해하지 않는 사람
라면을 잘 끓이는 사람
기념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는 사람

살다 보면

살다 보면

힘든 일을 겪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면 대개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이 닥쳐오는 것일까' 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잠시 주변을 돌아보면

당신의 시련보다 더 큰 고통과 싸우는 사람이
무척 많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잠시 옛일을 생각하면

당신은 지금보다 더 큰 시련을 잘 이겨내 왔음을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것이고

당신에게는 그것들을 극복할 능력이 차고 넘칩니다.



가짜 기억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이 쓴 <더 브레인>이라는 책을 보면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뇌와 몸은 알아채기 어려울 정도로 조금씩 변화한다고 한다. 우리의 적혈구들은 4개월마다, 피부 세포들은 몇 주마다 완전히 교체되는데, 약 7년이 지나면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원자가 다른 원자로 교체된다는 것이다.

데이비드 이글먼은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7년에 한 번씩 버전이 바뀌는 동안 내가 계속 나일 수 있는 것은 '기억' 때문이라고 한다. 재미있는 것은 이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얘기하는 대목이다.

기억이란 어떤 순간을 비디오카메라로 정확히 촬영해 보존하는 기능이 아니며, 오히려 무언가를 기억하려면 과거에 발생했던 불안정한 뇌 상태를 되살리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기억의 오류 가능성에서 관한 재미있는 실험 한 가지를 소개한다.

미국의 한 대학교수가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의 집에 연구원을 보내 그들의 과거 정보를 수집했다. 이 정보를 토대로 해서 연구자들은 참가자 각각의 유년기에 관한 이야기 네 개를 구성했다. 세 이야기는 진실이고, 넷째 이야기는 완전히 허구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는 어릴 적에 쇼핑몰에서 미아가 됐다가 어느 친절한 어른의 도움으로 다시 부모를 만나게 된 일에 관한 것이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과 대담하면서 네 가지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러자 적어도 참가자 4명 중 1명은 자신이 쇼핑몰에서 미아가 됐던 일을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말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참가자들이 그 일을 약간 기억해 내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면 더 많은 것을 기억해 내더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아가 된 자신을 도와준 중년여자에 대해서 얘기하는 참가자도 있었다고 한다.

이 실험의 예를 보며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과 당혹감이 밀려왔다. 기억력만은 남들보다 낫다고 믿었고, 주변에서도 '너는 기억력이 참 좋아~'라는 말을 들어왔던 내 뛰어난(?) 기억이 어쩌면 재구성된, 신뢰하기 어려운 기억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해 보면 친구들과 대화하던 중에 내 뛰어난(?) 기억력을 바탕으로 내 기억이 맞다고 우겨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쩌면 내 왜곡된 또는 사실과 다른 기억을 친구들의 머릿속에 강제로 주입시켰을지도 모를 일이다. 또는 반대로 친구 또는 집단의 누군가가 내게 특정 단어를 써서 나에게 지난 일을 기억해 내라고 강요한다면 나 역시 기억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가짜 기억 속으로 끼어들지 모를 일이다.

이제라도 기억의 오류 가능성을 알게 된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내 기억이라는 것이 완전하다고 믿고 기억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내 기억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자각해야 어떤 일에
든 공정한 방향 또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

내 기억의 세부사항들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겠다.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행으로 이끄는 유혹은
‘남들도 그렇게 하니까’라는 말이다.

- 톨스토이 -



나 홀로 여행

몇 해 전에 친한 언니와 유럽 여행을 간 적이 있다. 보름 정도 휴가를 내고 다녀와야 했던 나와 달리 언니는 일을 그만둔 상황이었던 터라 이왕 간 김에 한 달을 머물겠다고 했다.

일정을 짜다 보니, 마지막 1박 2일은 언니와 헤어져 혼자 파리에서 보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첫 유럽여행이라는 설렘도 잠시. 혼자 지내야 하는 1박 2일이 두려워졌다. 사실 나는 한 번도 혼자 여행을 가본 적이 없다. 해외여행은 말할 것도 없고, 국내여행조차 혼자 떠나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14일간의 여행보다 1박 2일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가 막막했다.

호텔에서 지내는 것이 무서워 일단 한인민박으로 숙소를 예약하고, 공항에서 민박집까지 가는 방법들을 보기 쉽게 사진으로 정리했다. 나가서 식사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고, 민박집에서 대충 끼니만 해결하고 다음 날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계획만 있을 뿐이었다. 혼자서 어디 돌아다닐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1박 2일 동안 숙소에만 있자!' 괜찮다면 숙소 근처 공원에 잠시 둘러보는 정도만 계획했다. 혹시라도 여행 다니는 동안 계획표를 잃어버릴까 봐 3일에 한 번씩 점검 또 점검했다. 그래도 안심 이 안 됐다.

14일이 지나고 언니와 헤어져야 할 순간이 왔다. 속으로 야속한 마음도 조금 있었더랬다. 그냥 같이 한국에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은 숨긴 채 호기롭게 언니와 헤어지고,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까지는 무사히 도착. 시내로 진입하는 지하철에 혼자 올랐을 때는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다. 내려야 할 목적지를 지나칠까 봐 얼마나 안내방송에 집중했는지, 주변 경치를 살필 여력이 없었다.

어찌어찌 한인민박집까지 도착하니, 점심 무렵. 오느라 고생

했다며 민박집 사장님이 식사를 챙겨 주셨다. 식사하면서 오늘 일정을 묻는 사장님께 “하루종일 여기 있다가 내일 공항에 갈 거예요”라고 당당하게 내 계획을 알렸다.

비싼 돈 주고 이 멀리까지, 그것도 파리에 와서 숙소에만 있는 것이 이해 안 간다는 표정이었다. 근처에 캠퍼스가 예쁜 대학이 있으니 구경하러 가란다. 기왕이면 오는 길에 에펠탑 야경까지 보고 오라 했다. “유럽에선 밤에 여자 혼자 다니면 위험하다던데?” “괜찮아~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야. 특별히 너한테 지하철 패스도 그냥 줄게.” 나가지 않겠다는 나와 잠깐이라도 나갔다 오라는 사장님과의 승강이 끝에 결심했다. ‘그래. 나가 보자. 내가 언제 또 파리에 와보겠다고...’ 지하철 노선만 확인하고 길을 나섰다. 첫 번째 목적지는 대학 캠퍼스.

‘잔디에 앉아 현지 대학생처럼 책이나 좀 읽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을 보니, 그 사이 조금 적응이 됐나 싶었다. 웬걸. 마음과 달리 몸이 따라주질 않았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 책이 눈에 안 들어왔다.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야경을 보기엔 이른 시간인 줄 알면서도 에펠탑으로 이동했

다. ‘근처 카페에 가서 커피 좀 마시고, 마음에 안정을 찾자!’ 카페가 죽 늘어선 거리. 카페마다 사람들이 넘쳐났다. 삼삼오오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보니, 기가 죽어서 근처만 기웃대다 포기했다. 에펠탑이 보이는 계단에 주저앉아 ‘야경은 무슨. 숙소로 돌아갈까...? 파리의 낮은 대체 왜 이렇게 긴 걸까...’ 별 의미 없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 한 시간, 두 시간 시간이 흘렀다.

하늘이 어스름해지고, 주변에 사람이 늘어나는 것을 보니, 에펠탑에 곧 조명이 밝혀진다는 뜻일 듯싶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에펠탑에 불이 밝혀졌다. ‘와...’ 나도 모르게 터지는 환호. 불빛이 짙어질 때까지 멍하니 바라보게 되는 이국적 풍경.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하는 것 같은 착각. 여러 생각이 오갔다. 묘하게 마음이 울렁였다. 기분 나쁘지 않은 울렁거림이었다.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가까이 들여다 본 적이 있었나?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 홀로 여행도 괜찮군!’



생활민착형 좌우명

대학 때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방송작가로서 17년 정도 일해 온, 그러니까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언어와 관련된 일을 해 온 내가, 무엇보다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한국어를 쓰면서 40년 동안 살아 온 내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 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아니 어떻게?

이 밖에 다른 예로 ‘현재를 즐겨라’ 또는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등 ‘즐거라’류의 명령형 문장은 아마 좌우명계에서 1·2위를 다투는 인기 문장이 아닐까 싶다. 이 인기에 힘입어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의 말로도 자주 사용되는데, 내 경험

상 이런 말들은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 위로보다는 도저히 저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심정적 거부와 함께 반발심을 불러일으키곤 한다.

단언컨대 나는 한 번도 피할 수 없는 일을 즐겨 본 적이 없다.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는 항상 괴로웠을 뿐이다. 아니 일 자체를 즐겨 본 적이 있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거시적인 명령형 좌우명보다는 미시적이고 경험적이고 간단하면서 소소한 얘기들을 더 좋아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머리 끈이 없다면 주변을 둘러봐라. 100m 안에 분명히 떨어진 머리 끈이 있을 것이다.(하다못해 노란 고무 밴드라도 말이다)' 불판 위에서 익고 있는 삼겹살을 먹기 직전, 책상 위에 얹드려 메모를 해야 할 때, 뒷목에 자꾸만 땀이 차는 여름날 미처 머리 끈을 준비하지 못한 장발인이라면 100m 반경 안에서 평안을 찾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예. 이견 후배가 대학 시절 텔레마케터 알바를 할 때 터득한 요령이라며 들려 준 얘기다. 수화기 너머의 사람을 설득해서 물건을 팔아야 할 때 모든 방법을 다 써 본 후 마지막에 쓰는

치트키는 몇 마디 말이 아니라 몇 초의 침묵이었다. 이 요령의 효과는 나 역시 인정한다. 직업상 출연자 섭외, 장소 섭외 등 수많은 섭외를 전화로 해야 할 때가 많은데, 내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상대가 넘어 올 듯 넘어오지 않을 때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치트키를 동원해 본 적이 있다. 들릴 듯 말 듯한 한숨 뒤에 몇 초간의 침묵... 그 뒤에 들려오는 대답은 “휴, 알겠습니다. 해 드릴게요”였다. 물론 매번 통하지는 않았다.

이런 작은 요령들은 수많은 열쇠 껍데기에서 마침내 딱 맞는 열쇠를 찾아서 자물쇠를 열었을 때처럼 통쾌함을 준다. 즐겨라류의 명령형 좌우명보다 더 믿음직스럽다.

좌우명이라는 말의 유래를 찾아보니 두 가지 설이 있는데, 두 설의 공통점은 자기가 앉은 자리의 오른쪽,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두고 경계한다는 것이다. 내 식으로 이해하자면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같은 말을 내 책상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써 두고 식욕을 경계하며 다이어트에 매진하는 상황 정도가 아닐까 싶다. 여기서 다시 한번 내 식으로 이해하자면 책상 옆에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라는 말을 써 놓은 사람은 아마 무수한 다이어트 실패

경험을 가졌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창피함을 무릅쓰고 위와 같은 문구를 자기 옆에 써 놓고 정신을 다잡고 있는 것이다. 아니 이 마지막 수단도 지난 다이어트 실패의 순간에 수없이 써 봤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이 이어지다 보니 한 가지 못된 생각이 들었다. ‘제 좌우명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잘 즐기지 못하는 타입 아닐까? 그도 즐기지 못하니까 자기 자리 오른쪽에 써 놓기까지 하며 꼭 지킬 거라 자타에 알린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을 듣고는 쫄지 말자. 쫄지 말고 속으로 생각하자. ‘아 당신도 나처럼 잘 즐기지 못하는 타입이군요’ 라고 말이다.

근데 쫄지 말자도 명령형이네. 그렇다면... ‘쫄지 않는 것이 좋겠다’ 아니면, ‘쫄지 않는다면 어떨까?’ 이것도 아니면, ‘쫄지 않게 되길 바랄게’ ‘네가 쫄지 않는 날이 온다면 내가 정말 행복할 거야?’ 정도...



역시 아빠보다는 엄마?

방송 작가로 17년 동안 일하다 보니 많은 곳에서 촬영을 했는데, 군부대 촬영도 5번 이상은 되는 것 같다.

한번은 ‘아버지의 식탁’이라는 주제로 GOP 부대 촬영을 한 적이 있다. 아버지들이 아들의 부대에 몰래 찾아가서 손수 음식을 해 준다는 내용이었는데, 방송의 기획 의도는 어머니가 해 주는 집밥은 흔하고 많이 봤으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집밥을 만드는 모습을 담아 보자는 것이었다. 서로 잘 표현하지는 않지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존재하는 끈끈하고 묵직한 사랑도 담아 보고 싶었다.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차려주는 밥상을 받기만 하던 아버지들이 양파의 습격에 눈물을 흘리고 튀김 기름에 부상을 입으면서 탕수육을 만들어 냈다. 아들에게 맛있는 밥을 먹이기 위한 아버지들의 고군분투 분량은 제대로 뽑았다. 드디어 본격적인 촬영 시작. 고향집에서 영상 편지로 소식을 전한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가 실제로 장병들 앞에 나타난 순간은 촬영의 하이 라이트였다. 음... 그런데... 나의 예상은 단단히 어긋났다. 영상 편지를 볼 때만 해도 눈가가 축축하던 장병들이 진짜 아버지가 나타나자 어색한 포옹을 한 번 나누고는 말이 없어졌다. 촬영은 축축한 눈물 한 방울 없이 건조하게 끝났다.

진짜 하이라이트는 카메라가 꺼진 뒤에 시작됐다. 아버지와 함께 아들을 보러온 어머니들이 카메라 뒤에서 나타난 순간 아들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때만은 우리나라의 최전방 GOP를 지키는 군인이 아니라, 엄마가 그리웠던 막내아들의 표정 그대로였다. 엄마를 부르는 목소리에는 애교가 묻어났고, 서로 탕수육을 먹여 주며 볼을 쓰담쓰담하는 모자 사이는 참 다정해 보였다. 원래 생각했던 그림이 카메라가 꺼진 뒤에 내 눈앞에

펼쳐졌다. 그 촬영이 끝나고 나서 제작진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얘기했다. ‘역시 아빠보다는 엄마구나.’

왜 우리는 아버지와 서먹서먹한 걸까?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나는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는 딸에 속한다. 아버지와 같은 베개를 베고 눕기도 하고, 예전보다 살이 찐 아버지 배를 꼬집으면서 관리 좀 해야겠다는 농담도 편하게 나눈다. 아버지가 어려워서 눈도 못 마주치고 슬슬 피하게 된다는 친구들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남의 이야기다.

하지만 이런 나도 솔직히 말해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편하다. 강원도 고성에 사시는 아버지가 가끔 서울을 올라오셔서 1박 2일 동안 단둘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이런 생각을 하곤 한다. ‘아 엄마랑 같이 오시지.’

왜 우리는 아버지와 서먹서먹한 걸까? 심사숙고해 생각해 봤지만 정답 같은 딱 하나의 이유가 떠오르지는 않는다. 엄마와 더 오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남녀의 차이….

이 밖에도 여러 이유가 있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런 서먹한 아버지와 내 사이가 나와 후배들 사이와 비슷하지 않나 하

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열 살 혹은 띠동갑의 나이차가 나는 후배들과 회식을 할 때 내 눈에는 후배들이 참 즐거워 보인다. 이렇게 즐거운 1차가 끝난 후 2차 회식장소로 이동할 때 나는 씩 빠져 준다. 나를 제외한 후배들만의 단독방이 필요한 이유와 같은 이유로 선배가 빠진 회식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아무리 잘해 주는 선배라고 해도 선배는 어쨌든 어려우니까... 뭐 나도 후배였던 적이 있으니 '어쨌든'에 숨겨진 복수의 의미를 모르지 않지만 선배가 돼 보니 선배도 '어쨌든' 씩씩하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서먹한 사이를 극복해 보려 노력은 해 봐야 하지 않을까? '오지고 지리는' 급식체를 적절한 타이밍에 사용하기 위한 연습을 해 보고, 아버지가 엄마 없이 혼자 서울에 올라오신 어느 날 아버지의 배뿐 아니라 볼도 한 번 꼬집어 보면서 말이다. 어색하지 않게 잘 꼬집어야 할 텐데 걱정이 오지고 지리다. 음... 이렇게 쓰는 게 맞나?

〈마음의 양식〉과 함께 잊지 못할 병영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마음의 양식〉에서는 장병 여러분의 훈훈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병영 에피소드나 잊을 수 없는 전우, 가족, 친구, 연인, 선임, 선임·후임병 등 고마운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진솔한 마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본지 '병영풍경'과 '사랑의 엽서' 코너에 소개해 드립니다.

✿* 병영풍경 참여방법

병영생활 중 잊지 못할 에피소드를 200자 원고지 5장 분량으로 작성해서 보내 주세요. 원고가 채택된 장병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사랑의 엽서 참여방법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연인은 물론 생활관 선임·후임병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세요. 엽서 형식의 짧은 글과 함께 사진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사연이 채택된 장병에게는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 '병영풍경'과 '사랑의 엽서'에 보내신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채택된 원고는 편집 방침에 따라 일부 수정하거나 분량을 조절할 수 있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에는 이름, 계급, 부대명, 연락처를 꼭 적어 주세요.

보내실 곳

우)04383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군중정책과 〈마음의 양식〉 담당자 앞
TEL : (02)748-5192

마음의 양식

2018년 가을호 제143집

- 펴낸 곳 · 국방부
펴낸 이 · 국방부 군증정책과
지은 이 · 이두희·김영주·박지영
인쇄 일 · 2018. 8. 24.
발행 일 · 2018. 9. 27.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1번지)
전화 : (02)748-5192
디자인·인쇄 · 국군인쇄창(M18080910)
주소 · 충남 계룡시 계룡대로 663
전화 : (042)553-4504~8

<http://www.mnd.go.kr>

국방정보공개 ◀ 간행물 ▶ 일반간행물 ▶ 마음의 양식

※ 본 <마음의 양식>은 장병 정서함양 및 교양증진을 위해 국방부에서 배부하는 도서임.



1337 신고전화는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하는 당신이 국가대표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
Defense Security Command

간첩, 방산스파이, 기밀누설, 테러범 등 우리나라의 숨은 위협들을 신고해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해보세요

- 신고유형: 간첩/외국인 밀입국/외국인 밀수출/외국인 밀수입/외국인 밀수출/외국인 밀수입
- 상급내역: 간첩은 간첩, 최고 20년형, 테러범은 간첩, 최고 20년형, 국군 내역: 최고 5년형
- 신고방법: 전화: 부대/사단/군본부 1337, 홈페이지: www.mnd.go.kr, 팩스: 02-748-5192

병영생활 고충, 군범죄·성폭력,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은 국방헬프콜 ☎ 1303(군·공중·일반·휴대전화 등 모든 전화로 통화 가능)
【인트라넷, 인터넷, 모바일 신고/상담시 검색창에서 "국방헬프콜" 입력】

국군인쇄창 홈페이지 www.mnd.mil/user/at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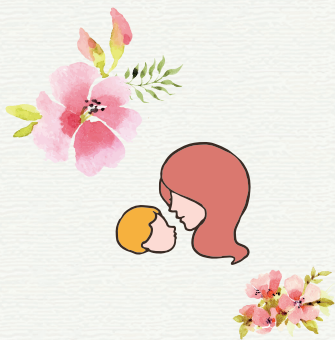
* 이 책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무단 전재 및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MEMO

MEMO

MEMO

MEMO



ISSN 1739-9645

<http://www.mnd.go.kr>